



2024년
남동문화재단
문화예술복지 사업
결과자료집



2024년 남동문화재단 문화예술복지 사업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4. 12. 31.

발행인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편집인 남동문화재단 임원재 사무국장

기획인 남동문화재단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

제작인 남동문화재단 신창희 차장, 이준협 사원

발행처 남동문화재단

디자인 노아 북앤컬처

문 의 070 · 8820 · 4037



목차

1. 문화예술복지 개요	8	3.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28
1) 문화예술복지 정의	10	1)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개요	30
2) 문화예술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	12	2)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① : 어버이날 기념 공연	34
3) 문화예술복지 대상 정립	14	(1) 공연 개요	34
		(2) 공연 세부내용	37
2. 남동문화재단 문화예술복지 사업 개요	16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김민정 사무국장(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38
1) 사업 추진 근거	18	(4) 전문가 리뷰 : 진나래 겸임교수(인하대학교)	42
2) 사업 배경 및 목적	20	3)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② : 노인 대상 특화 공연	48
3) 2023년 사업 추진 성과	22	(1) 공연 개요	48
4) 2024년 사업 추진 성과	24	(2) 공연 세부내용	51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김효숙 부장(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52
		(4) 전문가 리뷰 : 왕용운 대리(인천중구문화재단)	56
		4)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③ : 차상위계층 대상 특화 공연	62
		(1) 공연 개요	62
		(2) 공연 세부내용	65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윤다영 대리(만월종합사회복지관)	66
		(4) 전문가 리뷰 : 방문식 차장(평택시문화재단)	70
		5)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④ : 청소년 대상 특화 공연	74
		(1) 공연 개요	74
		(2) 공연 세부내용	77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임형철 청소년지도사(남동청소년센터)	78
		(4) 전문가 리뷰 : 서정미 외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82

4.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88
1)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개요	90
2)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① : 장애인 대상 특화 전시	94
(1) 전시 개요	94
(2) 전시 세부내용	98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고광원 팀장(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12
(4) 전문가 리뷰 : 이다운 대표(컬처랩)	116
3)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② : 노인 대상 특화 전시	122
(1) 전시 개요	122
(2) 전시 세부내용	124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강은영 사회복지사(남동구노인복지관)	138
(4) 전문가 리뷰 : 최정숙 대표(각시방)	142
5.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148
1)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개요	150
2)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① : 유아 대상 특화 교육	154
(1) 교육 개요	154
(2) 교육 세부내용	157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김국진 주무관(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158
(4) 전문가 리뷰 : 염혜령 팀장(구월종합사회복지관)	162
3)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② : 차상위계층·유아 대상 특화 교육	168
(1) 교육 개요	168
(2) 교육 세부내용	171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윤덕원 사회복지사(구월종합사회복지관)	172
(4) 전문가 리뷰 : 지영림 프로듀서(세종문화회관)	176

6.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180
1)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개요	182
2)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① : 간석동 주민 대상 미술 공연	186
(1) 공연 개요	186
(2) 공연 세부내용	189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허인옥 사회복지사(성산종합사회복지관)	190
3)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② : 간석동 주민 대상 마임 공연	196
(1) 공연 개요	196
(2) 공연 세부내용	199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이성진 팀장(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200
4)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③ : 만수동 주민 대상 클래식 교육	206
(1) 교육 개요	206
(2) 교육 세부내용	209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구순례 관장(와글와글작은도서관)	210
5)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④ : 남촌동 주민 대상 문화 커뮤니티 교육	216
(1) 교육 개요	216
(2) 교육 세부내용	219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최영주 코디네이터(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220
6)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⑤ : 만수동 주민 대상 마을 답사·젤프린팅 교육	226
(1) 교육 개요	226
(2) 교육 세부내용	229
(3)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 황혜미 활동가 등(마을카페 행만이네)	230



문화예술복지 개요



문화예술복지 정의

◆ 문화예술복지는 '문화접근성 보장 및 참여를 통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누리는 상태 또는 이를 보장하는 정책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문화예술복지는 문화적인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상태나 그러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복지 관련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정책적으로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고, 1996년에는 '국민복지 기본구상'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 나아가 문화예술복지는 '문화권(cultural rights)'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복지는 정의내리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학자들이 내린 문화예술복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혜영(2004) :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충실을 기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 현택수(2006) :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 및 민간의 활동
- 김세훈·조현성(2008) : 문화감수성 함양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적으로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
- 양혜원(2012) :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시책과 과정, 그리고 관련된 제도 전반
- 이현서(2014) : 개인의 여가생활 향유 기회를 증진시켜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사회구성원 간 공감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동체 문화의 근간



문화예술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

◆ 사회복지가 물질적·경제적 욕구의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반면, 문화예술복지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	사회복지	문화예술복지
개념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생존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문화감수성 함양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적으로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
대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취약계층
지향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과 이를 통한 사회 통합 및 복지 사회 실현	생존을 넘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이 충만한 사회 실현
주요 관점	생존권 보장, 빈곤 경감, 평등권 증진	개인 감수성 신장, 개인 창의성 신장, 사회의 역동성 증진
개념의 보편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개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문화권으로 개념화하며 생겨난 개념

문화예술복지 대상 정립

◆ 앞서 살펴봤듯이 문화예술복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려집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복지 대상 또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에서 구분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유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해당 분류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6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나아가 17개의 세분류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I. 아동	① 아동양육시설 ② 초등학교 ③ 지역아동센터
II. 청소년	④ 중·고등학교 ⑤ 대안학교 ⑥ 학교 밖 청소년 이용시설
III. 노년	⑦ 노인복지관 ⑧ 요양병원
IV. 장애인	⑨ 장애인특수학교 ⑩ 장애인복지관
V. 특수	⑪ 교정시설 ⑫ 군부대
VI. 일반	⑬ 병원 ⑭ 종합사회복지관 ⑮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⑯ 임대아파트 ⑰ 산업단지

남동문화재단 문화예술
복지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문화복지의 증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

◆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제8조(업무분장)

제8조(업무분장) ④ 문화예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5. 문화예술복지 증진사업 추진

사업 배경 및 목적

-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영유아,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공간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에 제한적인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구민 문화예술복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 문화예술 향유에 공간적 제약이 있는 원도심(남동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만수동, 남촌동, 간석동)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원도심 내 자생적 문화거점 생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 매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내 문화예술복지 유관기관과의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소외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 복수 장르의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문화다양성 확보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로 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2023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수혜자	22,025명
만족도	평점 4.92점(5점 만점) / 96.94%
사업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사업내용

구분		운영일시	대상	수혜인원	협력기관(단체)
복지 공연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6. 17.(토) 10시	차상위계층	117명	논현종합사회복지관
		10. 6.(금) 15시	노인	183명	남동구 노인복지관
복지 전시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6. 5.(월) ~ 9. 21.(목)	장애인	13,860명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9. 21.(목) ~ 11. 24.(금)	다문화가정	7,560명	인천 한누리학교
복지 거점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8. 11.(금) 16시 30분	만수동 주민	72명	햇살동지 어린이도서관
		8. 16.(수) 16시	간석동 주민	33명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8. 18.(금) 16시	간석동 주민	66명	성산도서관
		10. 10.(화) ~ 10. 17.(화)	만수동 주민	53명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10. 26.(목) 19시 30분	남촌동 주민	81명	미성회



2024년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수혜자	97,727명
만족도	평점 4.85점(5점 만점) / 96.94%
사업비	금83,940,000원(금팔천삼백구십사만원)

사업내용

구분	운영일시	대상	수혜인원	협력기관(단체)	
복지 공연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5. 8.(수) 14시	노인	230명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6. 13.(목) 10시	노인	217명	남동구노인 인력개발센터
		6. 21.(금) 16시	차상위계층	108명	만월종합 사회복지관
		8. 24.(토) 14시	청소년	159명	남동 청소년센터
복지 전시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4. 19.(금) ~ 11. 15.(금)	장애인	37,980명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4. 22.(월) ~ 11. 15.(금)	노인	58,588명	남동구 노인복지관
복지 교육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6. 5.(수) ~ 8. 21.(수)	유아	92명	남동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6. 14.(금) ~ 8. 26.(월)	차상위계층 유아	81명	구월종합 사회복지관
복지 거점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8. 9.(금) 16시	간석동 주민	83명	성산도서관
		8. 17.(토) 14시	간석동 주민	47명	청소년문화 공간 다누리
		10. 8.(화) ~ 10. 18.(금)	만수동 주민	86명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10. 16.(수) ~ 11. 6.(수)	남촌동 주민	42명	남촌어울림 커뮤니티센터
		10. 13.(일) 10시	만수동 주민	14명	마을카페 행만이네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개요

추진목적

- 문화소외계층(노인, 차상위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복지 공연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 관내 문화소외계층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대상을 타겟으로 한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

- 사업명 :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 사업내용 : 노인·차상위계층·청소년 대상 공연 4회
- 수혜자 : 총 714명(노인 447명 / 차상위계층 108명 / 청소년 159명)
- 만족도 : 4.82점(5점 만점) / 96.94% ※ 조사 참여자 508명
- 사업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추진경과

- 노인 대상 공연 운영 : 5. 8.(수) / 6. 13.(목)
- 차상위계층 대상 공연 운영 : 6. 21.(금)
- 청소년 대상 공연 운영 : 8. 24.(토)

기대효과

- 문화소외계층이 익숙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대중예술부터 순수예술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장르의 공연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내 문화소외계층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복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동문화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어버이날 기념 공연

공연일시 2024.5.8(목) 14:41 | 공연장소 남동구인배지관 4층 D102방
관람료 무료 | 공연문의 032-431-4085

출연진	악기	도반장
박선진 소프라노	전지연 국악인	인계범 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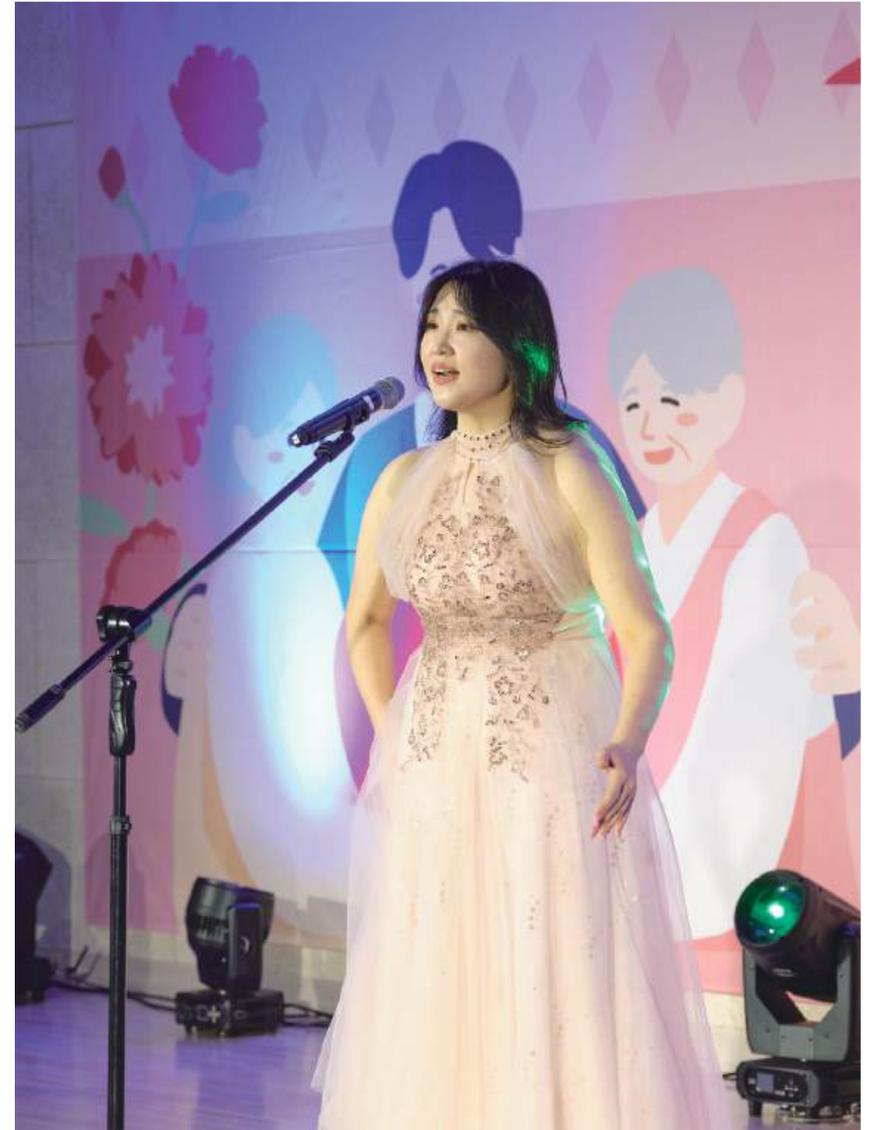
*본 공연은 장애인·노년·청소년·여성·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입니다.

남동문화재단 |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① 어버이날 기념 공연

공연개요

- 운영일시 : 5. 8.(수) 14시 ~ 15시 50분
- 운영장소 : 남동노인복지관 4층 강당
- 운영내용 : 노인 대상 특화 공연(성악·국악·대중가요)
- 출연진 : (사회)윤성준, (성악)박선진, (국악)전지연, (대중가요)안계범
- 수혜자 : 230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79점(5점 만점) / 95.89% ※ 조사 참여자 180명
- 협업기관 :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 어버이날을 맞아 취지에 맞는 공연이 적절한 장소에서 운영되었다. 클래식, 국악, 트로트라는 적절한 장르 혼합이 있었으며, 공연장에서 보여준 어르신들의 호응을 보니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 나아가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와의 협업으로 해당 공연이 운영된 점이 주목된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문화재단의 사업 환경과 지면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

한정현 팀장(평택시 문화재단)

공연세부내용

구분	진행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개막	13:50	14:00	10	• 관객입장
공연소개	14:00	14:05	5	• 윤성준 사회자 공연 소개
인사말·축사	14:05	14:10	5	• 김동인 지회장 인사말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14:10	14:15	5	• 유홍배 대학장 인사말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노인대학)
	14:15	14:20	5	• 김재열 대표이사 축사 (남동문화재단)
공연 내용	14:20	14:40	20	• 성악 공연(박선진 소프라노) · Nella Fantasia · 강 건너 봄이 오듯 · 아름다운 나라
	14:40	15:15	35	• 국악 공연(전지연 국악인) · 한 오백년 · 청춘 카츄사의 노래 · 쾌지나 칭칭 · 국악 메들리
	15:15	15:50	35	• 대중가요 공연(안계범 가수) · 특급사랑 · 보릿고개 · 인생 · 트로트 메들리
폐막	15:50	16:00	10	• 관객 퇴장 및 만족도 조사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김민정 사무국장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본인과 기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 사무국장 김민정입니다. <(사)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는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김동인 지회장님 외 1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 6명, 취업지원센터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188개소의 산하 경로당을 포함하여 남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남동구노인복지관>과 <남동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과 회원관리, 부설 노인대학을 통한 교육과 별도의 취업 지원, 그리고 봉사단을 꾸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동구청과 협력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구월·간석 권역 58개소 시범 사업, <남동구노인복지관>과 <남동시니어클럽>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행사에 대해 노인분들의 관심은 어떠셨나요?

우리 노인회 회원분들 가운데 부설 노인대학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매회 수업 출석률도 높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전에도 남동문화재단의 수준 높고 전문성 있는 행사를 자주 언급하시더군요. 이번 어버이날 맞이 남동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행사를 전달했을 때도 높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함께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 공연은 다른 주관처와는 전

체적인 분위기부터 격이 달랐습니다. 음향이나 조명 같은 무대장치부터 전문 사회자의 재치 있는 진행과 높은 수준의 출연자들의 역량과 무대매너도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 어르신들에게 맞춘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부분도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단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요새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실상 우리는 노인으로 통칭하지만 당장 거동이 힘



드신 분들보다 이제 막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노후를 다양한 취미와 문화예술로 채워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공연은 그분들에게 일상의 행복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 공연도 좋지만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마굿간(경로당) 공연,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소와 장르로 남동구 동별 거점 경로당 시리즈 공연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 지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리 노인회는 19여 개소 경로당의 일상적이며 세심한 관리를 넘어 시범사업을 확장하고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어르신들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대학의 기본적인 운영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와 취업 알선, 노인봉사단을 운영하여 남동구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노인인구는 오히려 사회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회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



○ 전문가 리뷰 : 진나래 겸임교수(인하대학교)

어르신, '뽕'에 취하다

2024년 5월 8일, 인천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의 4층 대강당은 어르신들의 어깨춤으로 들썩였다. 인천 남동문화재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와 협력하여 노인층을 위한 공연을 준비한 덕분이다. 이날 이루어진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어버이날 기념 공연은 노년층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남동구 관내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던 만큼 참석자들은 남동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주였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와 동행하지 않고 홀로 참석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만큼은 문화재단이 자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었다.

모니터링을 위해 행사장인 대강당이 있는 4층으로 이동하며 지나친 각 강의실에서는 사물놀이 클래스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두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지만 그 움직임과 에너지만큼은 청년 못지않아 보였다. 나이 불문, 거동만 가능하다면 굳이 자녀나 도우미에 기대지 않고 누구든 스스로 주도적이고 활기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취미, 문화 활동 등을 활발히 하는 장년층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듯 노인복지회관은 문화 강좌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회관은 돌봄 서비스로만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던 필자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일명 '액티브 시니어', 즉 '활동적 장년'들이 바빠 움직이는 틈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간 대강당에서는 후끈한 열기마저 느껴졌다. 웅기종기 모인 어르신들 앞, 유희배 남동 노인대학 학장과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진행을 맡은 남동구 출신 윤성준 사회자가 연령에 맞춘 재미난 멘트들로 어르신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고 이후 공연이 이어졌다. 기획 자체가 일종의 '효도' 행사인 만큼, 공연 전반은 품바와 트로트, 뽕짝과 같은 국내 각종 지역 축제 등의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첫 공연은 성악가 소프라노 박선진의 'Nella Fantasia'였는데, 문화재단의 기획이라는 표를 내면서도 해당 연령대의 대중적 취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선정한 프로그램인 듯했다. '넬라 판타지아' 다음으로는 '강 건너 봄이 오듯', '아름다운 나라'와 같은 가곡이 이어졌으며,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사는 것만으로 행복한 것 아닌가 싶다'는 가수의 멘트는 한평생 고생하며 이곳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가슴을 울릴 법도 했다.

이후 아역배우 출신이자 창작가요제 대상을 받은 바 있는 전지연 국악인이 장구를 매고 시원한 소리로 실력을 뽐내며 무대에 등장했다. 보통 소리가 아니기에 살펴보니, 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였다. 그런 그 역시 본 공연에서는 어르신들의 대중적 취향에 맞추어 '한 오백 년'에서부터 '청춘 카츄사의 노래', '괘지나 칭칭', '국악 메들리'로 이어지는 신명나는 품바 공연으로 무대를 들썩이게 했다. '언니들', '어머니', '시어머니', '서방님' 등을 연신 외치는 만담에 강당은 어르신들의 웃음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반짝거리는 한복 공연 의상을 입고 스피를 도는가 하면 재주넘기까지 하니, 어르신들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급기야는 무대로 나가 몸을 흔드셨다. 청년에서 이제 막 중년으로 넘어가는 필자보다도 그곳 어르신들의 몸이 훨씬 가벼워 보였다.

사회자의 말대로 '무대를 찢어 놓으셨'던 그의 공연 다음 순서는 1997년 MBC 10대 가수왕 출신 안계범 가수의 트로트 무대였다. 앞선 무대가 워낙 흥분의 도가니였기에 다음 가수가 관촬을까도 싶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필'이 충만한 그가 부른 '특급사랑', '보릿고개', '인생', '트로트 메들리' 역시 그만큼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았다. 장년층에게는 역시 뽕짝과 트로트가 최고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트로트가 어르신들의 대중 음악이라면, 뽕짝은 어르신들의 댄스 플로어 음악인 것이다.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는 언론을 통해 본 행사를 홍보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문화도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다. 어르신들이 문화 사각지대에 있다 여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기획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행사는 분명 성공적이었다. 어르신들의 함성과 어깨춤을 비롯한 호응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 센터

나 지역 축제 등에서 쉽게 접하곤 하는, 즉 가만두어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있던 클리셰적 문화를 아무런 문화적 변용이나 성찰 없이 대중적 수요에만 맞추어 양산하는 방식이 과연 문화재단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생긴 것이 사실이다.

2022년 데뷔하여 인기가 급부상한 K·Pop 그룹 '뉴진스'의 성공으로 인해 이들의 데뷔 앨범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작곡가 '250(이오공)'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사실 그는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다루며 오랫동안 활동해온 음악가로, 한국 댄스 음악의 부리를 찾다 우리 '뽕짝'의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뽕'이란 제목의 개인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본래 뽕짝은 한국 중장년층을 위한 댄스 음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뽕짝의 음악적 역량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녹여낸 것이다. 이렇듯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되,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목되거나 발전할 때에 단순 상업이 아닌 신선한 문화가 될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라는 점, 어르신들의 대중음악이라 볼 수 있을 뽕짝과 트로트, 품바와 같은 장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중적 수요에만 주목하고 기존 문화를 양산하기만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역할일 수 없다. 각종 복지관, 지자체 사업, 상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적, 예술적 실험과 실천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구 단위 기초문화 재단에 기대하기에는 너무 과한 바람일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남동구노인복지개발센터
 2024년 6월 13일 (목) 10시
 공연장소: 남동구노인복지개발센터 3층 강당
 관람료: 무료

MC: 정대승
 가수: 조영민
 MC: 조영민

남동구노인복지개발센터
 문의: 032-466-8836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② 노인 대상 특화 공연

공연개요

- 운영일시 : 6. 13.(목) 10시 ~ 11시 30분
- 운영장소 :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3층 강당
- 운영내용 : 노인 대상 특화 공연(미술·대중가요·국악)
- 출연진 : (사회)윤성준, (미술)원태윤, (대중가요)정혜린, (국악)전영랑
- 수혜자 : 217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63점(5점 만점) / 92.56% ※ 조사 참여자 180명
- 협업기관 :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 공연 개최 목적과 취지가 매우 잘보이고 명확한 공연이다. 가족 대상 공연이나 어린이 대상 공연과 비교해 어르신 대상 공연은 운영 난이도가 높다. 남동문화재단은 어려운 미션을 매우 잘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연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지속되길 기대한다. ☞

전은주 주임(인천서구문화재단)

공연세부내용

구분	진행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개막	9:50	10:00	10	• 관객입장
공연소개	10:00	10:05	5	• 윤성준 사회자 공연 소개
인사말·격려사	10:05	10:08	3	• 권석규 센터장 인사말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10:08	10:11	3	• 김재열 대표이사 인사말 (남동문화재단)
	10:11	10:14	3	• 박종호 구청장 격려사 (남동구청)
	10:14	10:17	3	• 오용환 의장 격려사 (남동구의회)
	10:17	10:20	3	• 손범규 당협위원장 격려사 (국민의힘 남동구갑 당원협의회)
공연 내용	10:20	10:40	20	• 미술 공연(원태윤 미술사) ·홀라후프, 삼색로프 ·수정구슬, 공중부양탁자 ·곤봉 저글링
	10:40	11:05	25	• 대중가요 공연(정혜린 가수) ·평행선 ·프리지어꽃처럼 ·트롯트 메들리 ·엄마의 손편지
	11:05	11:30	25	• 국악 공연(전영랑 국악인) ·나는 열일곱살이에요 ·빈대떡 신사 ·태평가 ·뱃놀이 ·배 띄워라
폐막	11:30	11:40	10	• 관객 퇴장 및 만족도 조사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김효숙 부장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2007년 6월 센터 개소 당시 운영 총괄 팀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17년간 센터의 실무총괄자로 일하고 있는 김효숙 부장입니다.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소개해주세요.

본 센터는 2007년 3월 남동구청에서 남동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86호에 의거, 2007년 6월 개소하여 그 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 일자리를 알리고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 초기투자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장형사업으로 노들다솜을 개점한 바 있으며, 각 구의 모든 센터들이 명칭이 통일 변경되어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로 개칭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다년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참여자들이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최고의 복지 노인일자리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어르신'이라는 표어와 '어르신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

림', '남동구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센터와 남동사회 함께 하는 행복 이음'이라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한 결과,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에 공모(보네베 이커리 및 카페)하여 HACCP 인증 법인을 설립하여 다년간 기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시장형사업단 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직원의 복지와 사업개발비에 지원하고,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2021년, 2022년엔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상을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 41

개 사업에 참여자 3,84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올해, 2024년도에는 42개 사업단에 4,384명이(544명이 증가)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과정에 대해 말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이 남동구민의 소통과 참여로 이루어 가는 새로운 문화 예술을 위해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으로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를 통해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남동문화재



단의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고자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통해 남동문화재단과 본 센터가 함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삶을 함께하며 즐겁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행사에 대해 노인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공연 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180명 중 92.56%가 만족하신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에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어르신들에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전문가 리뷰 : 왕용운 대리(인천중구문화재단)

공연예술과 관객 그 사이 문화재단

문화예술 특히 공간과 시간의 예술인 공연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창작자의 창작 의도와 관객들의 몰입도(호응도)이다. 창작자의 창작 의도가 명확해야 하나의 공간 안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대상이 분명해지고 그에 따라 관객의 몰입도가 결정되며 몰입도는 결국 공연의 성공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가지 요소 중 우선순위는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며 그 기준은 전문 창작공연에서는 창작 의도가 행사성 레퍼토리 공연에서는 관객 몰입도가 우선순위의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객개발적 측면에서 이 두가지 요소는 상호보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동문화재단의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의 경우 문화예술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가 보여 관객들의 몰입도 측면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공연을 세 가지 부분으로 리뷰해 보고자 한다.

1. 몰입도 부분

관객의 공연 몰입 영향은 단지 본 공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현장에 들어오는 순간 시작된다. 현장의 분위기, 안내자의 친절도 등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모든 것이 공연 몰입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 공연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둔 무대 장치(기계장치, 현수막, 소품 등), 공연 타겟층을 배려한 세심한 자리 안내 및 사전 설명이 관객들의 사전 몰입도를 높이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2. 타겟층 및 공연 구성 부분

공연의 타겟층이 불명확하거나 광범위할 경우 관객들과의 내재적 소통의 부재 및 어려움이 있어 공연이 흐지부지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연의 경우 관람객 주요 타겟층이 장년층으로 명확했으며 흥미 유발을 위한 원태윤 마술사의 마술 공연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정혜린의 대중가요를 지나 국악인 전영랑의 전통 공연으로 마무리되는 관객 맞춤형 공연 구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마지막 무대인 국악인 전영랑님의 무대는 타겟층을 감안하더라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국악 콘텐츠를 위해 초반 대중가요(트로트)로 시작하여 국악 공연으로 마무리하여 큰 호응으로 공연을 끝마친 부분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3. 타 기관 협력 부분

마지막으로는 공연 외적 부분으로 현장 상황을 보았을 때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좋아 보였다.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두 기관이 함께 하는 사업 중에도 작은 불협화음 없이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인 문화예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과 함께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보였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 ‘관객 없는 공연’, ‘공연의 영상화’ 등이 유행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절대적 조건은 공연자와 관객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관객이 없는 공연, 상호작용이 없는 공연은 공연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남동문화재단이 진행한 문화예술복지 사업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공연의 본질적 가치인 공연자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동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문화복지 사업을 확장 추진해나간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이 지역의 공연예술 경험 혜택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그들이 문화예술의 관객으로 개발되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남동문화재단 남동문화재단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2024. 6. 21.(금) 16시 2024. 6. 11.(월) 10시부터

만물출판사원예지원 4층 422동 양곡도 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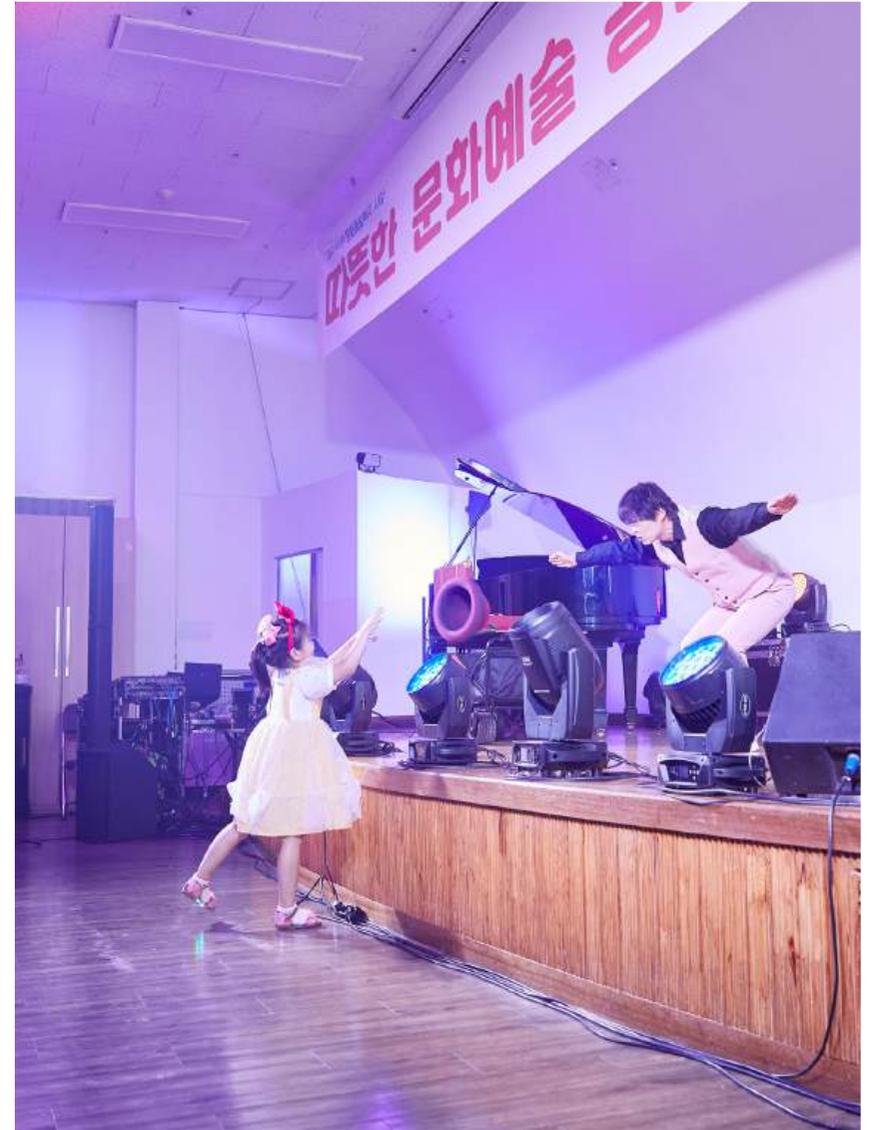
공연시간: 1시간 30분 (공연료 및 입장료 없음)

문의: 032-471-9070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③ 차상위계층 대상 특화 공연

공연개요

- 운영일시 : 6. 21.(금) 16시 ~ 17시 30분
- 운영장소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
- 운영내용 : 가족 대상 특화 공연(미술·클래식·마임)
- 출연진 : (사회)윤성준, (미술)원태윤, (클래식)아침의 트리오, (마임)배용기
- 관람객 : 108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98점(5점 만점) / 99.63% ※ 조사 참여자 54명
- 협업기관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 평일에 진행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가 잘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공연 중 관객 호응도도 매우 높았으며, 마지막까지 관객의 집중력과 호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공연 구성이 훌륭하다. 공연내용, 장소, 구성 등이 지역밀착형으로 기획되어 지역 문화예술 공연의 좋은 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 생각된다. ”

황연정 차장(경기문화재단)

공연세부내용

구분	진행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개막	15:50	16:00	10	• 관객입장
공연소개	16:00	16:05	5	• 윤성준 사회자 공연 소개
인사말·격려사	16:05	16:10	5	• 임경임 관장 인사말 (만월종합사회복지관)
	16:10	16:15	5	• 임원재 사무국장 인사말 (남동문화재단)
공연 내용	16:15	16:40	25	• 마술 공연(원태윤 마술사) ·홀라후프, 삼색로프 ·수정구슬, 공중부양탁자 ·곤봉 저글링
	16:40	17:05	25	• 클래식 공연(아침의 트리오) ·해뜰날 ·바람이 불어오는 곳 ·문어의 꿈 ·아리랑 ·행복을 주는 사람
	17:05	17:30	25	• 마임 공연(배용기 퍼포머) ·몸짓 마임 ·손짓 마임 ·버블 아트
폐막	17:30	17:40	10	• 관객 퇴장 및 만족도 조사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윤다영 대리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 대리 윤다영입니다. 저는 2021년도부터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복지회관으로 시작해서 2001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행복한 삶·희망찬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임경임 관장님 이하 14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소통, 존중, 공감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예방적 접근과 통합적 서비스, 다양한 자원 동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3대기능사업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상담, 결식우려 어르신 식사지원, 경제·정서·일상생활 지원, 독거남성어르신 자립 지원, 진로 탐색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주민모임, 마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과정에 대해 말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과는 올해 2월, 문화예술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발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문화공연 프로그램인 '소통의 장'을 통해 남동문화재단의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를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의 특징(연령층, 이용시간, 사회경제적 여건, 여가활동 등)을 고려하여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주제로 공연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섭외와 홍보부터 당일 무대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남동문화재단 담당자님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행사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마술, 클래식, 마임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거워하였습니다. 마술 공연은 아이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는데, 즐거움에 겨워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를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마술 참 신기하고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클래식 공연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곡

을 연주해 주셔서 역시나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친숙하고 역동적인 재미있는 공연이네!' 하며 좋아하셨고, 연주에 맞춰 다같이 노래 부르는 것이 인상깊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임도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호흡하니, 더욱 흥미롭고 즐거운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반적으로 공연의 퀄리티가 매우 높고,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끝나고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공연을 운영하신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선 남동문화재단에서 복지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공연을 기획해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복지관의 사업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해 주셨고, 무대와 음향팀 등 전문팀들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서 홍보, 무대 준비, 공연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질 높은 공연을 함께 해주신 남동문화재단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복지관이 위치한 곳은 구도심의 거주 밀집 지역으로 주변에 문화시설이 부재하여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어렵기에 관람비뿐만 아니라, 교통편마저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은 의식주에 비해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예술공연을 누리기에는 지리적, 심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예술가, 음향, 조명, 무대로 구성된 질 높은 공연을 경험하면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 구성, 소통하는 공연, 관람비 부담이 높은 무대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 어르신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행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회복지 실천을 고민하여 지역사회에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관 미션·비전과 같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으로서 동네 이웃들이 원하는 삶을 꿈 꿀 수 있도록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 전문가 리뷰 : 방문식 차장(평택시문화재단)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의 공공재로 거듭나는 법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늦은 오후, 만월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는 지역 주민 약 100여 명이 모였다. 인천 남동문화재단이 만월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루어진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③’은 가족 대상 특화 공연으로, 마술과 클래식, 그리고 마임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강당에는 구도심 인근 주택가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만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많았다. 비록 다음날이 주말이지만 평일 오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문화 예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의 환경적 조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말하자면, 문화 취약 계층으로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경험할 기회에 목말랐었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

공연은 전문 사회자인 윤성준 사회자가 맡았고, 마술에는 원태윤, 클래식은 아침의 트리오, 그리고 마임 공연은 배용기 공연가가 섭외되었다. 마술과 마임 공연은 앞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관심유도로 생각되고, 클래식 공연은 어른과 아이들에게 맞는 균형 있는 선곡으로 펼쳐졌다. 행사 구성 때문인지 처음 사회자가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관중들은 산만했다. 아이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어른들은 주변과의 잡담으로 부산스러웠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자 디스플레이로 보던 각종 콘텐츠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공연예술의 현장감에 몰입했다.

특히 너무나 익숙해진 현대의 이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적 긴장감과 현장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호응하는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다. 스마트폰과 SNS를 접하기 너무 쉬운 세상, 오히려 차상위계층은 현장감 있는 일회성의 공연은 직접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문화적 취약계층’은 문화예술 현장의 직접적인 향취를 문화재단을 비롯한 브로커가 예술가와 연결하는 기획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간, 건강, 경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일컫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으로 일컬으며, 지난 2003년부터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기획하였다. 덕분에 예산은 부침할지라도 매년 조금씩 증가해 왔고, 정치·사회적 이슈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최근엔 예술가 복지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으로도 파급되고 있어 긍정적인 사회현상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고학력층,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자발적 수요계층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역 이용률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그 까닭을 정치적 수사에서 드러난 탁상행정, 지원책의 비현실성, 단순 금액 지원의 한계 등 여러 가지로 내세운다. 그러나 연구들의 함의는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얼마간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스스로도 새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생산해 내지 못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떡도 먹어본 놈이 안다.”라는 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동문화재단에서 설정한 ‘차상위계층’은 다른 말로 ‘문화적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시간과 경험 자원이 없어 문화예술 공연과의 접점이 미미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단에서는 이 현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특정하고, 이들에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문화예술적 경험의 단초를 제공하려고 했던 기획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마침 성과가 방증하듯이 평일 오후에도 강당을 가득 메울 만큼 그들의 문화예술적 관심은 컸다. 이번처럼 스스로도 몰랐던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고, 지역사회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문화예술 공공기관’, 즉, 남동문화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재단의 사업으로 문화예술이 지역민 모두에게 긴요한 공공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④ 청소년 대상 특화 공연

공연개요

- 운영일시 : 8. 24.(토) 14시 ~ 15시 30분
- 운영장소 : 남동청소년센터 1층 어울림터
- 운영내용 : 청소년 대상 특화 공연(클래식·어쿠스틱·마술)
- 출연진 : (사회)윤성준, (클래식)아침의 트리오, (어쿠스틱)노화정, (마술)원태윤
- 관람객 : 159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88점(5점 만점) / 99.66% ※ 조사 참여자 94명
- 협업기관 : 남동청소년센터





☞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역시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공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은 클래식, 어쿠스틱, 마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청소년의 흥미를 끌기 좋은 구성이었다. ☞

김국진 주무관(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연세부내용

구분	진행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개막	13:50	14:00	10	• 관객입장
공연소개	14:00	14:05	5	• 윤성준 사회자 공연 소개
인사말·격려사	14:05	14:10	5	• 이용찬 센터장 인사말 (남동청소년센터)
	14:10	14:15	5	• 김재열 대표이사 인사말 (남동문화재단)
공연 내용	14:15	14:25	10	• 동아리 공연(예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14:25	14:45	20	• 클래식 공연(아침의 트리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밤양갱 ·문어의 꿈 ·아리랑 환상곡 ·L · O · V · E
	14:45	15:05	20	• 어쿠스틱 공연(노화정 싱어송라이터) ·드라마 ·상제리제 ·피노키오 ·내 맘 곁을 지켜 줄 사람 ·나는 나비
	15:05	15:30	25	• 마술 공연(원태운 마술사) ·홀라후프, 삼색로프 ·수정구슬, 공중부양탁자 ·곤봉 저글링
폐막	15:30	15:40	10	• 관객 퇴장 및 만족도 조사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임형철 청소년지도사 (남동청소년센터)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동청소년센터 청소년지도사 임형철입니다.

남동청소년센터를 소개해주세요.

남동청소년센터는 남동구 만수서로 70(만수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지하 1층에는 댄스실 및 밴드실, 1층에는 탁구, 독서, 보드게임, 닌텐도, 파티룸 등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실, 3층에는 요리공방과 강의실, 4층에는 대규모의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강당이 있습니다.

남동청소년센터에서 수행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기획봉사단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활동, 청소년·가족 캠프와 같이 일상에서 문화 체험을 즐기는 문화 활동, 즐거운 학교 만들기 '스트

레스 탈출'과 같이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학교연계활동, 청소년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운영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 진행으로 지역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전문 공연팀, 음향팀, MC 등 수준 높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공연 진행 당일 예상보다 많은 분

들이 와주셔서 공연장 내 열기가 가득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공연 중간 관객분들이 함께 즐기며 떼창하는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센터 소속 청소년 밴드 동아리 친구들이 공연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청소년들에게 전문공연자와 함께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와 관객들이 많은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역량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야외 공연, 댄스, 밴드 등의 페스티벌과 같은 기회가 일상 속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청소년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 며 청소년 행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기 관이 되고자 합니다. ■



○ 전문가 리뷰 : 서정미 외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세대와 함께한 흥(興)!

2024년 8월 24일, 인천 남동청소년센터 1층 어울림터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부모가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이 있었다. 어울림터는 박수와 환호가 넘쳤고 신나는 음악과 조명,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만들어 내는 흥겨운 시간으로 가득 채웠다. 이날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복지 공연 사업의 일환으로 남동문화재단과 남동청소년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된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공연의 주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센터라는 장소와 공연프로그램은 문화예술복지 사업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객석은 청소년 외에도 어린이와 부모세대를 볼 수 있었는데 한 장소에서 서로 소통하며 함께 공연을 향유 하는 모습은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하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사회자의 공연소개와 이용찬 남동청소년센터 센터장과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인사말과 격려사가 짧게 이어졌다. 남동문화재단과 청소년센터의 협업으로 청소년 대상의 특화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뜻깊고 감사하며 앞으로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에 협력하겠다는 메시지였다. 본격적인 공연 시작에 앞서 참석한 관객에게 선물 추천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하며 공연이 시작되었다.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는 밴드, 클래식, 어쿠스틱, 매직쇼로 이뤄진 갈라 공연이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지루할 틈 없는 주제공연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연 시작 전 1층 어울림터는 공연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좁은 공간 불편한 좌석 그리고 시야장애석도 있어서 큰 기대 없이 본 사업 모니터링에 집중하자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사회자의 멘트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아낌없는 선물 나눔은 공연을 기대하게 하며 장소의 불편을 해소하며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다.

먼저, 공연의 첫 시작은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순서로써 밴드 '애솔'의 연주와 노래였다. 청소년으로 이뤄진 보컬, 기타, 건반, 드럼을 연주하는 밴

드팀으로 아마추어 공연팀이지만 객석은 뜨거운 반응이었다. 노래와 연주는 DAY6(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곡을 불렀는데 '애솔'의 노래와 연주에 미래세대의 '흥'을 발견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소통하는 청소년 관객의 환호와 박수에서 '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나의 청소년 시기가 떠오르는 아주 멋진 무대였다. 다음은, 클래식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아침의 트리오' 플루트팀이다. 전문 플루티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전하는 해설과 연주는 아침을 맞는 상쾌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밤양갱', '문어의 꿈'을 연주하자 객석에서 노랫소리가 들렸고 연주에 맞춰 부르는 관객의 떼창은 공연자와 관객이 상호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 내었다. 플루트 외에도 칼림바와 타악기를 연주하며 공연의 분위기를 주도하자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객석은 정화되고 있었다. 클래식 악기로 연주하는 대중음악과 어렵지 않고 연주를 누리며 향유 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의 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의 트리오'의 공연이 끝나고 싱어송라이터 '노화정'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노래로 이어졌다. 익숙한 상송과 가요를 들려주며 관객과 짧은 대화를 통해 음악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노화정'의 무대에서 아쉬움은 한 곡 정도는 전 세대가 다 알 수 있는 대중적인 곡으로 선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갈라 공연인 만큼 등장과 퇴장 그리고 악기 세팅이 필요한 시간에 진행자의 센스있는 퀴즈와 선물 증정은 다음 공연을 기대하게 하는 막간의 휴식과도 같았다.

마지막으로 '원태윤' 마술사의 마술 공연이 이어졌다. 등장과 함께 터져 나오는 객석의 함성은 어울림터를 가득 채웠다. 마술 도구들을 준비하고 공연하기에 무대 천정의 높이가 낮고 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세대까지 동참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 풀어냈다. 특히, 곤봉 저글링은 큰 환호를 받았고 이렇게 공연에 몰입하며 재미를 느껴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무척 재미있었고 미래세대들의 흥! 흥!이 절로 나는 시간이었다.

요즘은 청소년 대상의 특화 무료공연을 쉽게 접하는 기회가 흔하지 않는데 좋은 취지로 미래세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관객은 공연예술의 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감에서 격려와 위

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 공연이고 가까운 거주지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와닿았다. 앞으로도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와 같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의 꿈과 비전을 위해 잠시 힐링의 시간을 전할 수 있는 취지로 좋은 문화예술복지 사업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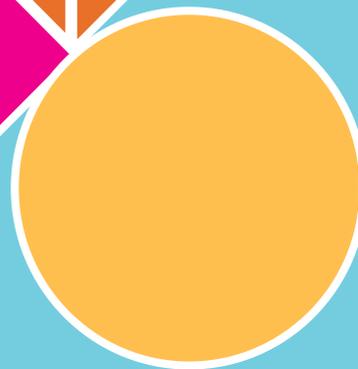
다소 공연에 아쉬움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최적화된 무대 공간과 객석이었다. 공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연의 3요소가 무대, 관객, 실연자이듯이 무대를 꾸며줄 실연자들이 잘 보이고 완성된 최고의 공연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무대장치들이 마련된다면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들이 더 멋진 무대로 종종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래도 이용찬 센터장과 김재열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관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 공연 프로그램을 두 단체가 협업해서 제공한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주어 문화로 생동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함이니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글을 맺으며 든 생각은 본 공연이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관내 청소년센터 공간에 무대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장르 또한 다채롭게 편성하여 전 세대 간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례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향후 관내 문화 소외계층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흥!' 있는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젝트」의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개요

추진목적

- 문화소외계층(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복지 전시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 관내 문화소외계층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대상을 타겟으로 한 문화예술복지 전시를 운영하여 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

- 사업명 :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 사업내용 : 노인·장애인 대상 전시 2회(각 7개월 간)
- 수혜자 : 총 96,568명(장애인 37,980명 / 노인 58,588명)
- 만족도 : 4.34점(5점 만점) / 86.82% ※ 조사 참여자 370명
- 사업예산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추진경과

- 장애인 대상 전시 운영 : 4. 19.(금) ~ 11. 15.(금)
- 노인 대상 전시 운영 : 4. 22.(월) ~ 11. 15.(금)

기대효과

- 문화소외계층이 익숙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지역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내 문화소외계층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복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동문화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남동장애인복지회

전시기간 2024 4.18(금) - 11.15(금)	전시장소 남동장애인복지회 1층(1층 서당)	전시내용 전자의원 활동 사회예술 작가 참여 전시	관람료 무료
------------------------------------	-------------------------------	-------------------------------------	-----------

전시 문의 032-472-4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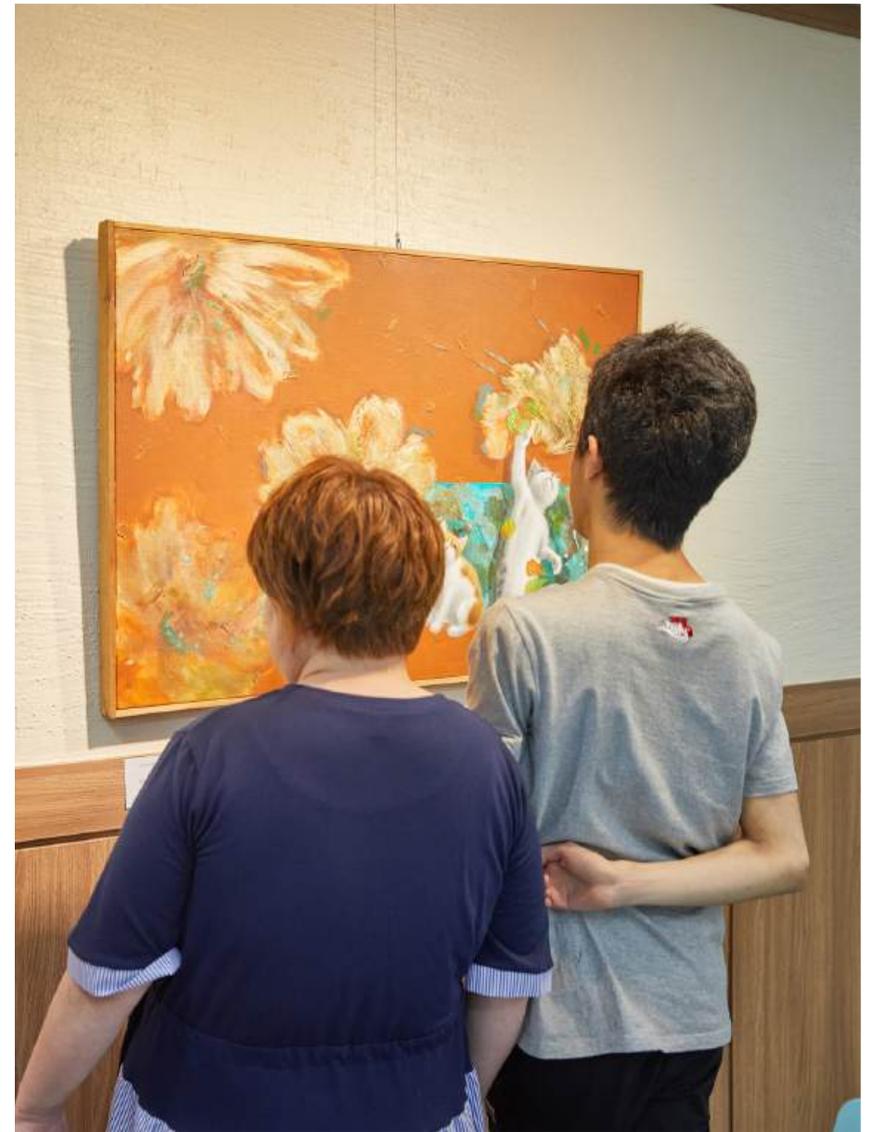
남동장애인복지회 | 남동장애인복지회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① 장애인 대상 특화 전시

전시개요

- 운영일시 : 4. 19.(금) ~ 11. 15.(금)
- 운영장소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식당
- 운영내용 : 장애인 대상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 전시작품 : 70건
- 수혜자 : 37,980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81점(5점 만점) / 96.19% ※ 조사 참여자 315명
- 협업기관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이번 전시의 기획 대상과 의미에 집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나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환기가 중심일 것이며, 어디에나 있지만 문화예술 공간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관람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행사는 경제적 실익이 없기에 개인 갤러리에서 주최하기 어렵다. 이렇기에 장애에 대한 편견 극복과 평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비영리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최정숙 대표(각시방)

전시세부내용

4~5월 전시 작품 일람(11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4~5월	1	작 품 명	크리스마스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90*73
		작 가 명	김동규
	2	작 품 명	강화
		작품유형	수채화
		작품규격	73*62
		작 가 명	서정철
	3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비구상
		작품규격	117*90
		작 가 명	김가령
	4	작 품 명	영종대교
		작품유형	유화
		작품규격	90*75
		작 가 명	최도범
	5	작 품 명	수족관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73*54
		작 가 명	이순자
	6	작 품 명	동백
		작품유형	유화

구분	연번	작품내용	
4~5월	6	작품규격	96*70
		작 가 명	이현주
	7	작 품 명	인연2022
		작품유형	민화
		작품규격	110*60
	8	작 가 명	최원숙
		작 품 명	갯바위
		작품유형	유화
	9	작품규격	116*82
		작 가 명	최도범
		작 품 명	합창
	10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100*73
		작 가 명	김동규
	11	작 품 명	산호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73*54
		작 가 명	이순자
	11	작 품 명	수면
		작품유형	수채화
		작품규격	73*54
	11	작 가 명	이순자

6월 전시 작품 일람(11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6월	1	작 품 명	협동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117*90
		작 가 명	김동규
	2	작 품 명	무제2020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90*73
		작 가 명	김형기
	3	작 품 명	대화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76*80
		작 가 명	한윤기
	4	작 품 명	소통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76*80
		작 가 명	한윤기
	5	작 품 명	사람들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90*117
		작 가 명	김가령
	6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구분	연번	작품내용	
6월	6	작품규격	65*80
		작 가 명	김가령
	7	작 품 명	냥이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혼합재료
		작품규격	90*65
	8	작 가 명	오현주
		작 품 명	냥이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혼합재료
	9	작품규격	90*65
		작 가 명	오현주
		작 품 명	하얀 목련
	10	작품유형	서양화/혼합재료
		작품규격	60*72
		작 가 명	도지성
	11	작 품 명	도시플
		작품유형	서양화/혼합재료
		작품규격	72*62
	11	작 가 명	도지성
		작 품 명	인연
		작품유형	민화/아크릴
	11	작품규격	73*60
		작 가 명	최원숙

7월 전시 작품 일람(10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7월	1	작 품 명	그때가 아름다웠다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24*90
		작 가 명	김가령
	2	작 품 명	동백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75*60
		작 가 명	이현주
	3	작 품 명	풍경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60*50
		작 가 명	조용선
	4	작 품 명	마을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117*92
		작 가 명	도지성
	5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75*70
		작 가 명	조용선

구분	연번	작품내용	
7월	6	작 품 명	초원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100*72
		작 가 명	조용선
	7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100*74
		작 가 명	한윤기
	8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100*74
		작 가 명	한윤기
	9	작 품 명	새벽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72*55
		작 가 명	오현주
	10	작 품 명	황혼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00*72
		작 가 명	이현주

8월 전시 작품 일람(12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8월	1	작 품 명	심산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160*120
		작 가 명	김상철
	2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65*90
		작 가 명	강미숙
	3	작 품 명	솔방울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70*110
		작 가 명	신은섭
	4	작 품 명	시선 올려보기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70*110
		작 가 명	신은섭
	5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섬유
		작품규격	60*60
		작 가 명	강선기
	6	작 품 명	인연 시리즈
		작품유형	민화/아크릴
		작품규격	90*115
		작 가 명	최원숙

구분	연번	작품내용	
8월	7	작 품 명	명랑한 동거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72*94
		작 가 명	오현주
	8	작 품 명	맨드라미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70*50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9	작 품 명	아침안개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70*50
		작 가 명	서정철
	10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72*94
		작 가 명	김가령
	11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90*65
		작 가 명	강미숙
	12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60*74
		작 가 명	강미숙

9월 전시 작품 일람(9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9월	1	작 품 명	군상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45*65
		작 가 명	강선기
	2	작 품 명	시선
		작품유형	한국화/수묵화
		작품규격	54*100
		작 가 명	신은섭
	3	작 품 명	시선-올려보기
		작품유형	한국화/수묵화
		작품규격	120*53
		작 가 명	신은섭
	4	작 품 명	동침
		작품유형	한국화/판화
		작품규격	120*70
작 가 명		한윤기	
5	작 품 명	혼돈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구분	연번	작품내용	
9월	5	작품규격	92*73
		작 가 명	김형기
	6	작 품 명	물놀이
		작품유형	서양화/일러스트
		작품규격	60*130
		작 가 명	최주석
	7	작 품 명	인연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73*50
		작 가 명	최원숙
	8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162*130
		작 가 명	김가령
	9	작 품 명	무제 2024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94*77	
작 가 명		강선기	

10월 전시 작품 일람(8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10월	1	작 품 명	그때가 좋았다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20*80
		작 가 명	김가령
	2	작 품 명	무제 2023
		작품유형	서양화/섬유
		작품규격	55*40
		작 가 명	강선기
	3	작 품 명	카오스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130*162
		작 가 명	김가령
	4	작 품 명	인연 시리즈
		작품유형	민화/아크릴
		작품규격	110*140
		작 가 명	최원숙

구분	연번	작품내용	
10월	5	작 품 명	골목길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88*130
		작 가 명	이현기
	6	작 품 명	도시화분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90*74
		작 가 명	도지성
	7	작 품 명	무상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74*90
		작 가 명	한윤기
	8	작 품 명	도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40*55
		작 가 명	강선기

11월 전시 작품 일람(9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11월	1	작 품 명	맨드라미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85*57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2	작 품 명	모듈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92*72
		작 가 명	김동규
	3	작 품 명	축제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53*73
		작 가 명	강미숙
	4	작 품 명	무제 2023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67*67
작 가 명		강선기	
5	작 품 명	북극곰 생존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구분	연번	작품내용	
11월	5	작품규격	73*73
		작 가 명	오현주
	6	작 품 명	동백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77*56
	7	작 가 명	이현주
		작 품 명	수족관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8	작품규격	73*53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작 품 명	귀로
	9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88*57
		작 가 명	강미숙
	9	작 품 명	항아리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92*72	
		작 가 명	이현주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고평원 팀장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기획홍보팀 고평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우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6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관하였으나 2001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을 하였으며, 현재 8개팀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지역중심, 생태중심의 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전 연령의 장애인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우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언어적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향상지원사업과 다양

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문화지원사업, 성인기 자립생활·직업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지원사업, 지역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연계사업, 권익옹호 및 권익지원을 위한 권익옹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홍보사업과 운영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화동아리 사업, 수중재활사업과 같은 특성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동아리의 경우 당사자가 연기자와 제작 스태프로 참여해 직접 단편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부탁드립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에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소외계층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우리 복지관도 남동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이용인분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조금씩 연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동문화재단에서 복지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협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논의하다보니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고,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작품전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남동문화재단과 우



리 복지관의 마음이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전시에 대해 장애인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우선, 식사하는 공간이 작품과 조명으로 화사하게 바뀌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었고 매달 전시작품이 바뀌다 보니 새로운 작품을 기다리는 재미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보며, 식사를 하다보니 맛이 더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 공백 시 많은 분들이 전시를 기다리시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전시를 운영하신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에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동문화재단에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다보니 저희도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퀄리티 높은 전시를 복지관 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재단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

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지체장애인분들의 경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재처럼 복지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시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남동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많은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이 공연에 초청받아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확대 되었으면 좋겠고, 찾아가는 공연(뮤지컬, 공연, 연극 등) 형태의 문화예술 행사도 복지관 이용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나아 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속적인 환경보호 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이며, 동시에 장애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 이용인,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인분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



○ 전문가 리뷰 : 이다운 대표(컬처랩)

지역 작가의 작품이 장애인에게 다가간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2024년 4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7개월 간 특별한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가 운영되는 장소는 어느 기관 식당이며, 전시가 운영되는 7개월 간 매월 작품이 교체된다. 그리고 작품의 대부분은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인의 작품이다. 이 전시는 바로 남동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이다. 전시가 운영되는 곳은 남동구의 장애인 관련 시설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하 1층 식당이며, 전시 관람객은 매일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는 지역의 장애인들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장애인', '식당', '지역 예술인'이다. 이런 핵심 키워드만 봐도 그야말로 특별한 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소위 전시를 상상하면 어떤 광경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20대 젊은 여성이 세련된 옷을 입고 한 손엔 브랜드 커피와 다른 한 손엔 최신 핸드폰을 들고, 작품 앞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전시는 우리에게 도시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하지만 남동문화재단의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는 다르다.

키워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이번 전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구민에게 공개된 전시라고 해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 일반 시민은 드물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만을 위한 전시라고 해도 무방하다.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소재한 유수의 전시관을 찾는 것은 고난스럽다. 누군가의 조력이나 본인의 꽤나 큰 결심이 없다면 쉽지 않은 발걸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동문화재단이 장애인만을 위한 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일이다. 관람 대상을 고민해서인지 전시 설명도 매우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친절한 결정이다.

다음으로 이번 전시는 '식당'에서 운영된다. 전시회가 식당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글로 읽어도 어색할 정도로 특별한 일이다. 시각예술 작품의 전시는 상당히 품격있게 취급된다. 전시 작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전시되는 전시장의 상태나 환경도 매우 중

요시한다. 그래서 보통 상황이라면 전시장이 아닌 공간에서 전시가 운영되는 것 자체를 작가에 대한 실례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전시는 식당에서 운영되었다. 왜일까? 본인은 이를 대상에 대한 매우 깊은 배려로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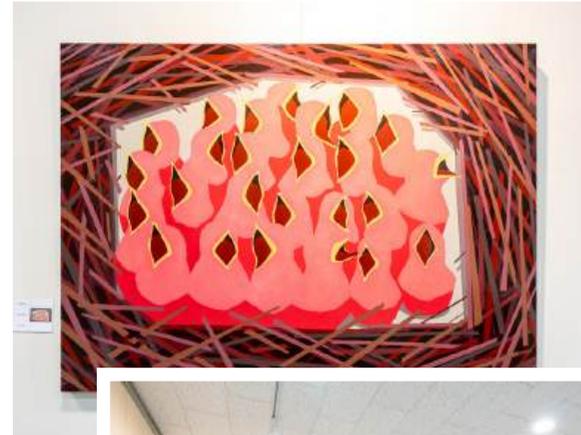
앞서 말했듯이 이번 전시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좁혀 매우 특별한 전시를 운영했지만, 그 대상의 접근이 자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운영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다. 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 바로 식당에서 전시를 운영한 것은 그야말로 훌륭한 발상이다. 게다가 식당에서 운영되는 전시라고 해서 대충 벽면에 못질 몇 번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전시 작품을 게시하는 전문 설비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그림의 색감을 관람객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 작품마다 적당한 위치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는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인의 작품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 또한 감동적이다. 십여 년간 문화예술을 업으로 살고 있는 본인이지만, 본인의 작품을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만난 적이 없다. 이젠 예술인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회이다. 일반 대중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나의 생계를 위해서도,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하지만 나의 작품이 정서적 의미나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예술인의 입장에서 특별한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남동문화재단의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는 예술인에게도 특별하게 다가갈 전시이다.

우리 사회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나아가 우리와 다른 너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는 넘쳐흐른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너희를 위한 행사는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이 아닌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일 것이며, 공공의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무리를 대상으로 한 기획은 정량적 성과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적당히 걸치례하는 정도로 진행한다. 하지만 남동문화재단은 다르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은 전시이지만, 이뿐 아니라 공연, 교육, 원도심 행사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라고 들었다. 정말 보기 드문 사례이다.

남동문화재단의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응원한다. 앞으로 언젠가는 정량 성과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앞으로 언젠가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수를 위한 사업보다는 더 많은 구민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복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 되기 때문이다. 남동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다. 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멋지게 해나가길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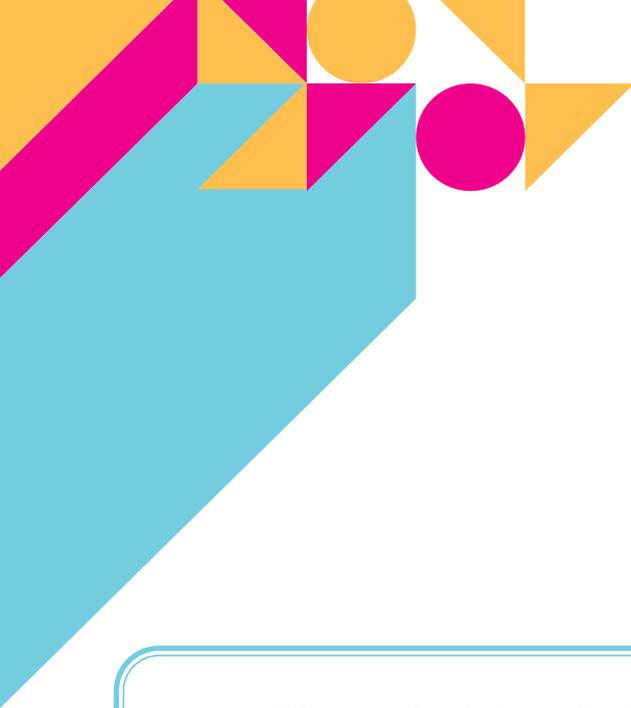
2022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남동구노인복지관

전시기간 2022. 9. 22.(화) ~ 11. 15.(화)	전시내용 노년기에 어울리는 사생활을 즐기 위한 전시
전시장소 남동구노인복지관 3층 로비	관람료 무료

남동구노인복지관 전시 문의 (032-435-1950) 남동구노인복지관



포근한 문화예술 전시 프로젝트 ② 노인 대상 특화 전시

전시개요

- 운영일시 : 4. 22.(월) ~ 11. 15.(금)
- 운영장소 : 남동구노인복지관 3층 복도
- 운영내용 : 노인 대상 지역 예술인 작품 전시
- 전시작품 : 68건
- 수혜자 : 58,588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3.87점(5점 만점) / 77.45% ※ 조사 참여자 55명
- 협업기관 : 남동구노인복지관

☞ 해당 전시는 문화예술복지 기획적 차원에서 매우 훌륭하다. 전시 안내적 측면에서나 전시 운영적 측면, 전시 작품적 측면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다.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전시가 남동구에서 지속되길 희망한다. ☞

이다운 대표(컬처랩)



전시세부내용

4~5월 전시 작품 일람(10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4~5월	1	작 품 명	바보들의 행진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115*80
		작 가 명	김동규
	2	작 품 명	인연 2020
		작품유형	민화
		작품규격	90*62
		작 가 명	최원숙
	3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비구상
		작품규격	80*65
		작 가 명	간선기
	4	작 품 명	이사가는 날
		작품유형	일러스트
		작품규격	128*52
		작 가 명	최주석
5	작 품 명	시선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128*52	
	작 가 명	신은섭	

구분	연번	작품내용	
4~5월	6	작 품 명	하늘
		작품유형	수채화
		작품규격	73*62
		작 가 명	이순자
	7	작 품 명	PINE-TREE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126*40
		작 가 명	신은섭
	8	작 품 명	시선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110*80
		작 가 명	신은섭
	9	작 품 명	널찍기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73 × 62
		작 가 명	김동규
10	작 품 명	그냥 그러고 싶었어	
	작품유형	아크릴	
	작품규격	89 × 60	
	작 가 명	김가령	

6월 전시 작품 일람(11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6월	1	작 품 명	동백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96*70
		작 가 명	이현주
	2	작 품 명	크리스마스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90*73
		작 가 명	김동규
	3	작 품 명	강화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73*62
		작 가 명	서정철
	4	작 품 명	갯바위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16*82
		작 가 명	최도범
	5	작 품 명	사람들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90*117
		작 가 명	김가령
	6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구분	연번	작품내용		
6월	6	작품규격	65*80	
		작 가 명	김가령	
	7	작 품 명	영종대교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90*73	
	7	작 가 명	최도범	
		8	작 품 명	수족관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73*54	
	8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9	작 품 명	인연2022
			작품유형	민화/아크릴
	작품규격		60*110	
	9	작 가 명	최원숙	
		10	작 품 명	산호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73*54	
	10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11	작 품 명	수면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73*54	
	11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7월 전시 작품 일람(10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7월	1	작 품 명	무제2020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90*73
		작 가 명	김형기
	2	작 품 명	협동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117*90
		작 가 명	김동규
	3	작 품 명	냥이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90*65
		작 가 명	오현주
	4	작 품 명	냥이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90*65
		작 가 명	오현주
5	작 품 명	인연	
	작품유형	민화/아크릴	
	작품규격	73*60	
	작 가 명	최원숙	

구분	연번	작품내용	
7월	6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75*75
		작 가 명	강미숙
	7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75*75
		작 가 명	강미숙
	8	작 품 명	대화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76*80
		작 가 명	한윤기
	9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60*80
		작 가 명	김가령
10	작 품 명	하얀 목련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60*72	
	작 가 명	도지성	

8월 전시 작품 일람(10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8월	1	작 품 명	그때가 아름다웠다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24*90
		작 가 명	김가령
	2	작 품 명	동백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75*60
		작 가 명	이현주
	3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100*74
		작 가 명	한윤기
	4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100*74
		작 가 명	한윤기
	5	작 품 명	황혼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00*72
		작 가 명	이현주

구분	연번	작품내용	
8월	6	작 품 명	풍경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60*50
		작 가 명	조용선
	7	작 품 명	마을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117*92
		작 가 명	도지성
	8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75*70
		작 가 명	조용선
	9	작 품 명	초원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100*72
		작 가 명	조용선
	10	작 품 명	새벽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72*55
		작 가 명	오현주

9월 전시 작품 일람(10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9월	1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90*65
		작 가 명	강미숙
	2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섬유
		작품규격	60*60
		작 가 명	강선기
	3	작 품 명	시선-올려보기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70*110
		작 가 명	신은섭
	4	작 품 명	심산
		작품유형	한국화
		작품규격	160*120
		작 가 명	김상철
	5	작 품 명	맨드라미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70*50
		작 가 명	이순자수산나

구분	연번	작품내용	
9월	6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65*90
		작 가 명	강미숙
	7	작 품 명	아침안개
		작품유형	서양화/수채화
		작품규격	70*50
		작 가 명	서정철
	8	작 품 명	귀로 시리즈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60*74
		작 가 명	강미숙
	9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72*94
		작 가 명	김가령
	10	작 품 명	명랑한 동거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72*94
		작 가 명	오현주

10월 전시 작품 일람(9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10월	1	작 품 명	시선
		작품유형	한국화/수묵화
		작품규격	54*100
		작 가 명	신은섭
	2	작 품 명	군상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45*65
		작 가 명	강선기
	3	작 품 명	시선-올려보기
		작품유형	한국화/수묵화
		작품규격	120*53
		작 가 명	신은섭
	4	작 품 명	동침
		작품유형	한국화/판화
		작품규격	120*70
작 가 명		한윤기	
5	작 품 명	혼돈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구분	연번	작품내용	
10월	5	작품규격	92*73
		작 가 명	김형기
	6	작 품 명	무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162*130
		작 가 명	김가령
	7	작 품 명	무제 2024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94*77
		작 가 명	강선기
	8	작 품 명	물놀이
		작품유형	서양화/일러스트
		작품규격	60*130
	9	작 가 명	최주석
		작 품 명	인연
작품유형		서양화/아크릴	
작품규격		73*50	
		작 가 명	최원숙

11월 전시 작품 일람(8건)

구분	연번	작품내용	
11월	1	작 품 명	그때가 좋았다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120*80
		작 가 명	김가령
	2	작 품 명	무제 2023
		작품유형	서양화/선유
		작품규격	55*40
		작 가 명	강선기
	3	작 품 명	카오스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130*162
		작 가 명	김가령
	4	작 품 명	인연/시리즈
		작품유형	민화/아크릴
		작품규격	110*140
		작 가 명	최원숙

구분	연번	작품내용	
11월	5	작 품 명	골목길
		작품유형	서양화/유화
		작품규격	88*130
		작 가 명	김형기
	6	작 품 명	무상
		작품유형	서양화/판화
		작품규격	74*90
		작 가 명	한윤기
	7	작 품 명	도시화분
		작품유형	서양화/혼합
		작품규격	90*74
		작 가 명	도지성
	8	작 품 명	도시
		작품유형	서양화/비구상
		작품규격	40*55
		작 가 명	강선기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강은영 사회복지사 (남동구노인복지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동구노인복지관 강은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교육지원팀에서 노년사회화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동구 내 거주하시는 60세 이상의 회원들에게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개발과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남동구노인복지관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미션 아래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장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남동구노인복지관은 노년사회화 교육사업,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노인전문상담사업,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뿐만 아닌 경로당, 어르신 가정,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남동구노인복지관은 2023년 7월, 28년동안 자리했던 구월동에서 수산동 신축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이다 보니, 3층 휴게 공간 벽면이 꾸며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동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전시사업에 대해 연계 요청해주어 3층 공간을 멋진 전시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연계된 미술관에서 매월 12점의 작품을 교체해주셨으며, 이는 어

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한 전시에 대해 노인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작가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술관에 온 듯 좋았다.”, “복잡한 생활 속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니 마음속이 편안해진다.”,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로 전시되어져 다채로운 감상이 가능했다.” 등 작품에 대한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휴게 공간에 작품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니 공간도 환기되며, 더욱 밝혀준다고 하여 그림이 사라지면 허전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전시를 운영하신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복지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욕구 중 미술·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미술관에 가보지 않



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작가의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미술관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년 가까이 매월 12점의 작품이 교체되면서 복지관 3층 공간에 미술관이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어 환기되고 좋았습니다. 거리가 있는 미술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아크릴화, 서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남동문화재단의 좋은 사업 덕분에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매월 좋은 기회로 경험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남동문화재단을 통해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일상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55년~63년)가 은퇴하며 복지관 신규 회원으로 등록되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문화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경험하여 자기계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진만큼 남동문화재

단에서 연계받아 공연, 미술 작품 관람,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생활 속의 공간에서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동문화재단의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행사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노인복지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동구노인복지관은 다가오는 2025년 30주년을 앞두고 복지관 비전인 '시대를 잇다', '성장으로 잇다', '공동체로 잇다'의 전략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ESG 경영실천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전문가 리뷰 : 최정숙 대표(각시방)

남동구노인복지관에 예술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오후, 저는 인천 남동구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남동 문화재단이 남동구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개최한 이번 전시는 노인들을 위한 작품 전시회로, 노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회화 작품들로, 그 주제와 표현 방식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러티브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들이 붙인 제목 '귀로', '대화', '나이', '인연'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소한 일상의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물입니다. 복지관 3층까지 올라와 작품을 감상하던 노인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따금씩 작품에 눈길을 주며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전시된 작품들에 대한 감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예술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반추하고 재해석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955년생으로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로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고 직접 운영한 경험도 많지만, 이번 전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남동문화재단의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그 대상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구층이지만, 그동안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대중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이 특정 세대에 의해 소비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고,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은 트로트, 가곡, 민속놀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가 이러한 틀을 벗어나 노인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노인들이 단순히 전시의 수동적 관람객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한층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화예술은 종종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인식되지만, 실상 예술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좋아

하는 편이지만, 대체로 노인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우리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 '586세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언론에서는 '역대급 은퇴자 수' 혹은 '정치·사회적 기득권'으로 단순화되어 표현되고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노인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그들이 가진 다채로운 경험과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노인은 자주 배제되며, 특히 최근의 문화예술 기획은 MZ세대와 그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은 단순히 '노인'이라는 범주에 갇히게 되고, 이들이 문화예술의 향유자로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노인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노인들은 종종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여겨지며, 그들의 문화적 취향이나 예술적 표현은 과거의 산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의 주요 대상이 주로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노인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통해 노인들은 단순한 과거의 경험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지관이라는 노인 커뮤니티 공간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그 자체로 문화예술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회화 작가들의 작품이 단순히 전시된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삶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전시를 통해 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은 문화예술의 소통과 공감의 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한정적이었던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런 기획이 지역 문화예술의 확산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예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것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선,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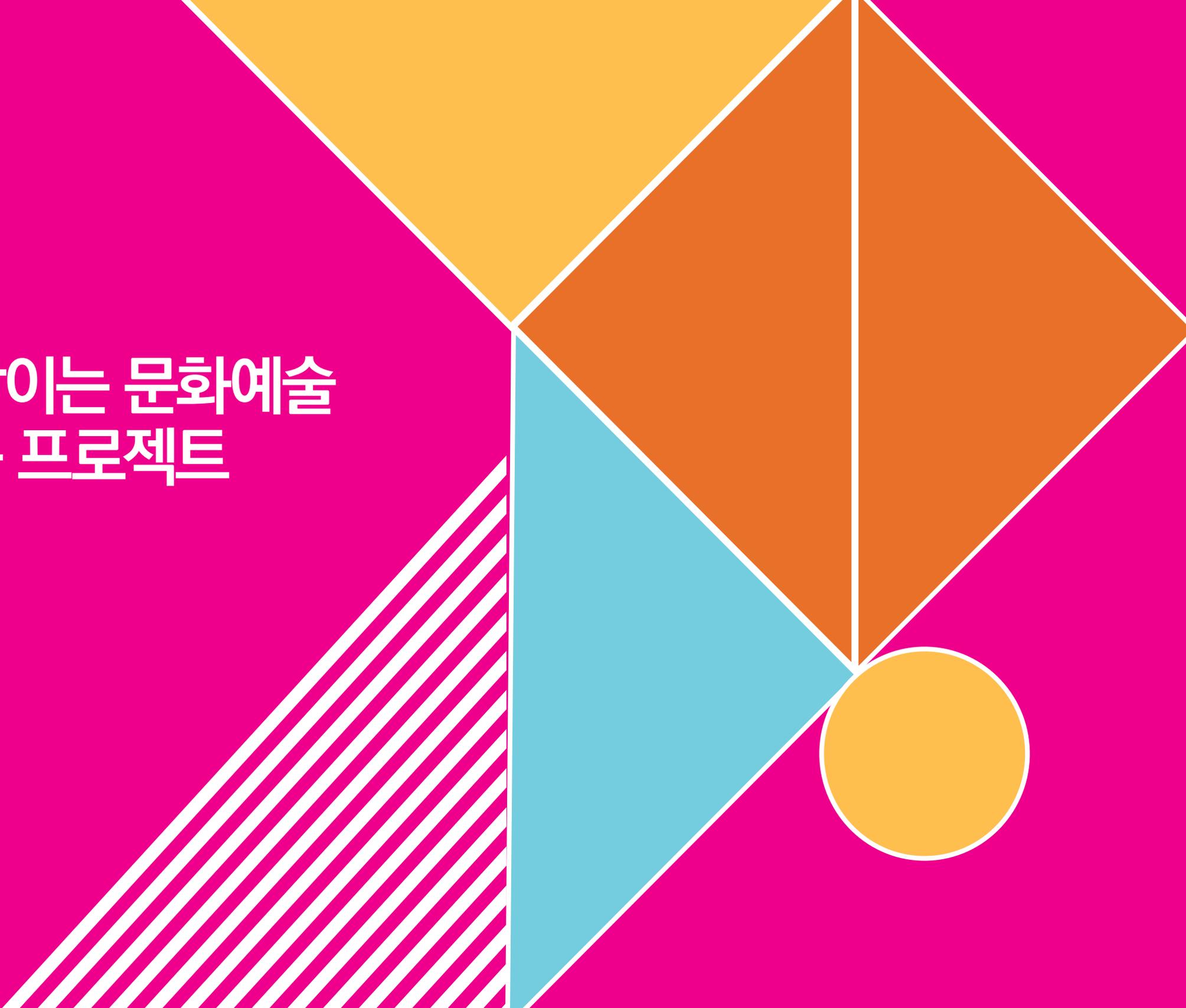
또한, 이번 전시와 같은 기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노인들이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노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노인들이 문화예술을 단순히 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참여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이 지속되어, 노인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 기획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노인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기를 희망합니다. ■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개요

추진목적

- 유아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복지 교육을 운영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자 합니다.
- 관내 문화소외계층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대상을 타겟으로 한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

- 사업명 :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 사업내용 : 유아·차상위계층 대상 교육 4회
- 수혜자 : 총 173명(유아 118명 / 차상위계층 55명)
- 만족도 : 4.8점(5점 만점) / 96.00% ※ 조사 참여자 38명
- 사업예산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추진경과

- 유아 대상 발레 교육 운영 : 6. 5.(수) ~ 7. 10.(수)
- 차상위계층 대상 서양미술사 교육 운영 : 6. 14.(금) ~ 7. 5.(금)
- 유아 대상 발레 교육 운영 : 7. 15.(월) ~ 8. 26.(월)
- 유아 대상 창의미술 교육 운영 : 7. 17.(수) ~ 8. 21(수)

기대효과

- 문화소외계층이 익숙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다채로운 문화예술 장르의 교육을 운영하여 수혜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내 문화소외계층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복지 사업의 지속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동문화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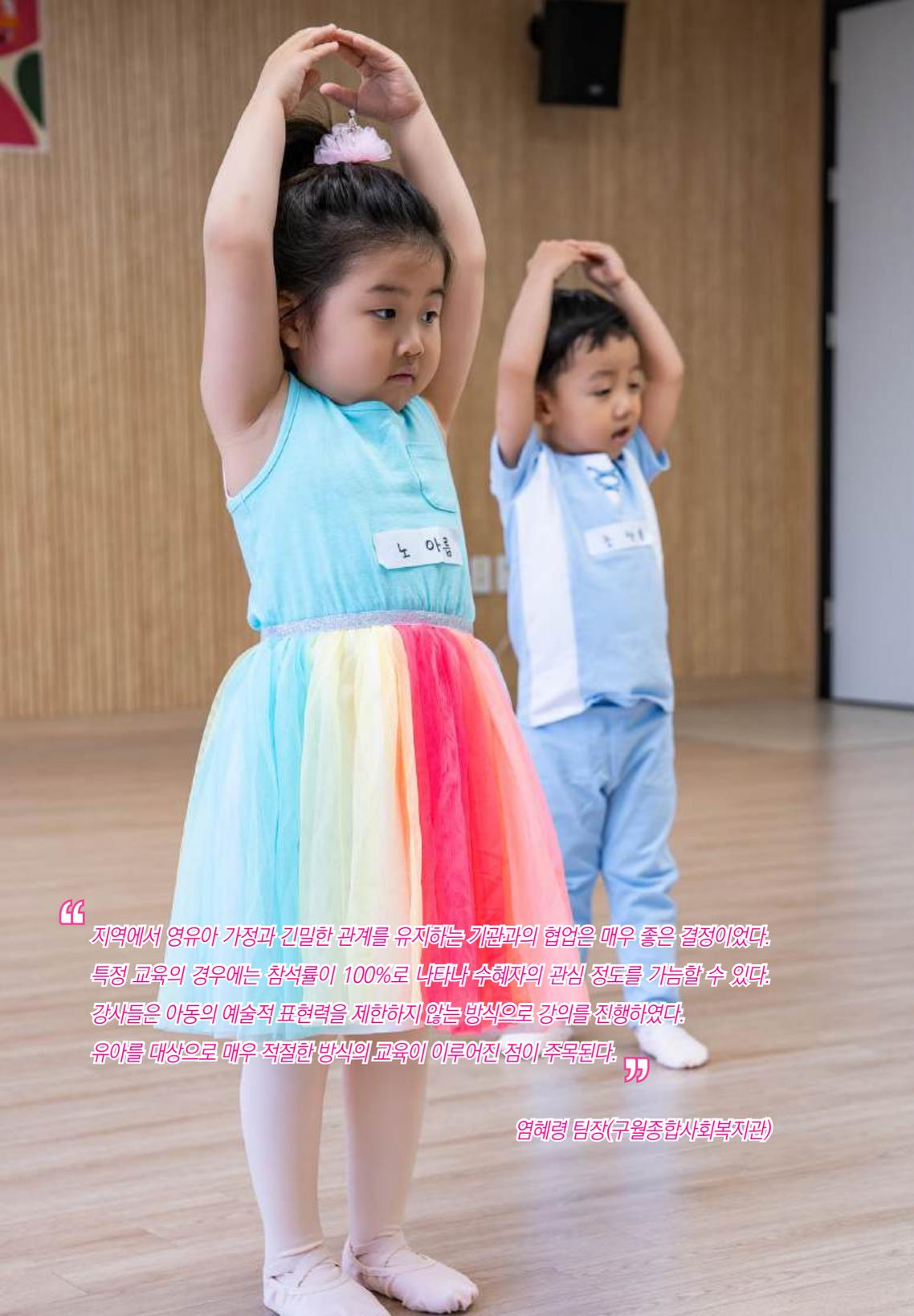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① 유아 대상 특화 교육

교육개요

- 운영일시 : 6. 5.(수) ~ 8. 21.(수)[총 12회]
- 운영장소 : 남동구평생학습관 2층 교육실
- 운영내용 : 유아 대상 특화 교육(발레·창의미술)
- 교육강사 : (발레)최새롬, 박경미 / (창의미술)박지선
- 교육인원 : 총 92명[발레 36명(수강생 6명) / 창의미술 56명(수강생 10명)]
- 교육비 : 무료
- 만족도 : 4.95점(5점 만점) / 99.05% ※ 조사 참여자 21명
- 협력기관 :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에서 영유아 가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관과의 협업은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 특정 교육의 경우에는 참석률이 100%로 나타나 수혜자의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강사들은 아동의 예술적 표현력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매우 적절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염혜령 팀장(구월종합사회복지관)

교육세부내용

구분	운영일시	강사	강의내용
발레 (6강)	6.05.(수) 16시 ~ 17시	최새롬	• 발레인사, 자리정하기, 스트레칭
	6.12.(수) 16시 ~ 17시		• 포인 플렉스, 발가락 낚시놀이
	6.19.(수) 16시 ~ 17시		• 턴 돌기, 스카프랑 친해지기
	6.26.(수) 16시 ~ 17시	박경미	• 드미 플리에, 그랑 플리에
	7.03.(수) 16시 ~ 17시		• 보레보레, 상즈망
	7.10.(수) 16시 ~ 17시		• 발레 동작 이어 완성하기
창의미술 (6강)	7.17.(수) 16시 ~ 17시	박지선	• 점선면, 나의 이름 새기기
	7.24.(수) 16시 ~ 17시		• 훨훨 날아라, 내가 만든 새야
	7.31.(수) 16시 ~ 17시		• 창밖엔 뭐가 있을까?
	8.07.(수) 16시 ~ 17시		• 세상에서 제일 긴 그림
	8.14.(수) 16시 ~ 17시		• 우리 몸은 이렇게 움직여요
	8.21.(수) 16시 ~ 17시		• 우리 농장엔 누가 살까?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김국진 주무관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본인과 기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김국진입니다.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동구청 산하 남동구 주민들을 위한 육아지원 거점기관입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남동구 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 영유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One · 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정보와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 보육, 도서·장난감 대여, 교재·교구 대여, 취약보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유아 대상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사 교육 및 부모 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변화하는 보육 정책 및 육아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하고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예술이라 하면 무언가 다가가기 어렵고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분야, 특히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동문화재단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라는 분야가 방대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 몇 주간 남동문화재단과 함께 유아발레와 창의미술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흐뭇한 표정에 저 또한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은 유아와 부모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너무 아쉬워했던 기억도 나네요. 아직 한 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단연컨대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는 저희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올해 베스트 프로그램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에 협업의 기회를 주신 남동문화재단 임직원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남동구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

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늘 부모와 함께 체험을 해왔던 유아가 처음으로 혼자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평소와는 사뭇 다른 유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놀랐고 참 기특했습니다. 이 마음은 이야기를 나눠 보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뒤돌아보면 특히나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걷도는 행동을 보이던 친구가 회차가 진행될수록 점점 변화면서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관하던 부모님과 제가 무척 놀라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며 예술이라는 장르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이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유아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예술에 기반을 둔 교육이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꼭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이번 프로젝트처럼 일회성이 아닌 다회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효과적이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

램이나 평소에 센터에서 여건상 진행이 어려운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이나 공연, 전시회 관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며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는 환경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다양한 형태의 가정 상황 속에서 미래의 새싹인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나 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그곳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보육 조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영유아, 신뢰받는 어린이집, 행복한 가정, 함께하는 남동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육 교직원 및 영유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동문화재단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도시 남동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전문가 리뷰 : 염혜령 팀장(구월종합사회복지관)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지난 6월~8월 남동문화재단에서는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남동문화재단에서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며 장애인, 노인,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공간적 여건으로 문화예술 향유에 제한적인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동구는 전체 수급자 수 3만 2천여 명의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교육지원 격차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아동과의 정서적 교류 시간이 부족하고, 돌봄공백이 증가하여 아동이 다양한 문제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둔 지역에서 남동문화재단은 거점공간을 두어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동 대상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로 진행된 ‘발레’와 ‘창의 미술’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아동들의 문화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보여진다. 두 프로그램 모두 6회기 진행되었으며, 각 1회기의 모니터링이었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 발레 프로그램은 발레의 기본 동작과 자세를 배우며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기초를 연습해보는 시간과 같았다. 아동들은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보며 춤을 추기도 하였다. 남동문화재단에서 강의에 필요한 발레복과 슈즈를 제공해주었는데, 아이들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연신 만지작 만지작거리며 공주님 포즈를 지어보기도 하였다. 강사는 발레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노래와 춤을 함께 표현하며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듯하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여두고 신나게 춤을 춰보기도 하고, 다시 정돈하고 ‘발 끝 포인, 플렉스, 앙바, 안아방, 앙호’ 등 발레를 배워보기도 하였다. 어린 아이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자니 ‘아이들의 집중력이 이렇게 높을 수 있나? 어린 시절 발레를 배워보는 경험이 새로운 무엇을 해봤다는 성취감이 크게 작용해 후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매력에 빠져 보고 있는 순간 한 아이가 갑작스레 엄마가 보고싶다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장 먼저 달랜 것은 다름 아닌 옆 친구였다.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친구들도 다 여기있잖아~ 같이 해볼까?’ 하며 눈 맞춤을 해주던 모습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문화예술적 기회를 향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래 아동간에 관계형성과 사회성 향상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동들은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위와 같이 신체발달과 자신감 향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동반한 예술적 감성을 향유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 창의미술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 발휘를 통해 미술적 기초와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이 드러났다. 참여 아동들은 100%의 참석률로 아동들이 얼마나 흥미있어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들과 지역 학부모의 욕구가 높아 ‘창의 미술’ 수업을 신규 개강하였는데, 인기가 많아 대기자가 줄줄이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지역 내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인 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창의 미술’의 만족도 또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은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자유롭게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나 사교육에서 경험해볼 만한 프로그램을 문화예술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어져 소외되는 대상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 발레’와 ‘아동 창의 미술’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창의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거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소외계층에도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매우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느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아동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

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많은 아동들이 문화예술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문화적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반짝이는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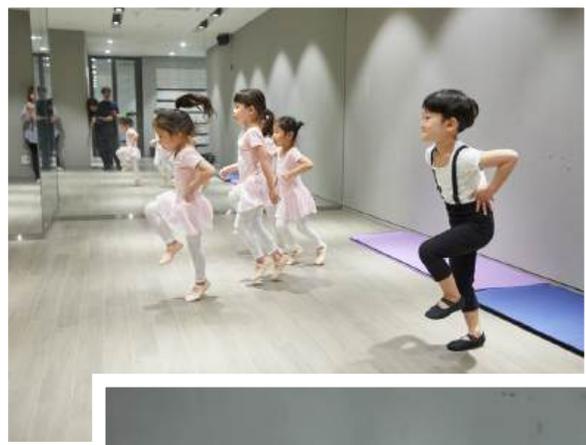
김재민 강사

·서울대 대학원 석사
·연예인 '신데렐라' 출연 - 유리가 출연한
그림 속 이야기 (박사, 석사, 석사)

김재민 강사 프로젝트

구분	운영 일시	운영명	장 의 내 용
사업 집행시 연간	6. 14(월) 19시~21시	30명	예술가전 관람(회초음속)
	6. 21(월) 19시~21시	30명	가위 제작(안구출혈(안상환))
	6. 28(월) 19시~21시	30명	전자 목걸이(안상환) 교육 및
	7. 05(월) 19시~21시	30명	회전(박재민)을 위한 안경 제작(박재민) 및

- 교육내용: 사진(김재민), 가위(김재민), 목걸이(김재민), 회전(김재민)
- 교육장소: 구월동청소년복지지원센터 1층강당
- 신청기간 및 신청: 2024. 6. 13(목)~6. 24(화) (신청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교육기간: 2024. 6. 14(수)부터 7월 5(월)까지 4주에 걸쳐 운영
- 교육대상: 구월동청소년복지지원센터 1층강당
- 교육비: 무료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구월동청소년복지지원센터

교육기간
2024. 7. 16(화)부터
2024. 8. 26(월)까지 총 6주

교육대상
유아(만 3~4세)

교육내용
구월동청소년복지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주요 QR코드 신청

교육비
구월동청소년복지지원센터
지원(교육비 및 재료비 무료)

문의처
070-8942-6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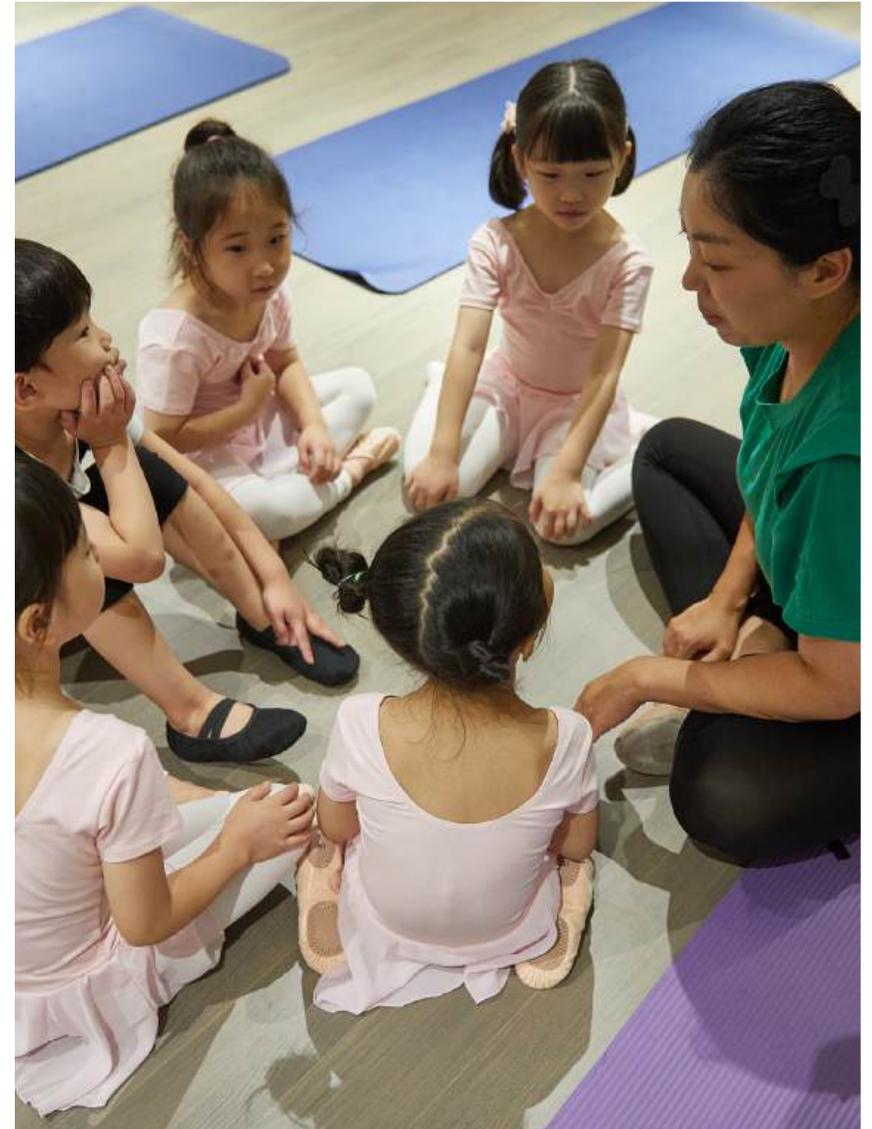
이경민 강사
주요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후원예술 교사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 ② 차상위계층·유아 대상 특화 교육

교육개요

- 운영일시 : 6. 14.(금) ~ 8. 26.(월)[총 10회]
- 운영장소 :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교육실
- 운영내용 : 차상위계층·유아 대상 특화 교육(서양미술사·발레)
- 교육강사 : (서양미술사)김채린 / (발레)박경미
- 교육인원 : 총 81명[서양미술사 55명(수강생 15명) / 발레 26명(수강생 5명)]
- 교육비 : 무료
- 만족도 : 4.65점(5점 만점) / 92.94% ※ 조사 참여자 17명
- 협력기관 : 구월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한 것이 매우 주목된다. 더불어 교육의 주제 또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서양미술사와 발레로 정한 점도 돋보인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민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문화예술 교육이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교육은 그러한 수요를 적중했다.



지영림 프로듀서(세종문화회관)



교육세부내용

구분	운영일시	강사	강의내용
서양미술사 (4강)	6. 14.(금) 19시 ~ 21시	김채린	• 예술가의 탄생(르네상스)
	6. 21.(금) 19시 ~ 21시		• 가장 혁명적인 그림들(인상파)
	6. 28.(금) 19시 ~ 21시		• 천재 혹은 정신병(반 고흐 등)
	7. 05.(금) 19시 ~ 21시		• 최근 주목받는 작가 등(뱅크시 등)
발레 (6강)	7. 15.(월) 16시 ~ 17시	박경미	• 발레인사, 자리정하기, 스트레칭
	7. 22.(월) 16시 ~ 17시		• 포인 플렉스, 발가락 뉘시놀이
	8. 05.(월) 16시 ~ 17시		• 턴 돌기, 스카프랑 친해지기
	8. 12.(월) 16시 ~ 17시		• 드미 플리에, 그랑 플리에
	8. 19.(월) 16시 ~ 17시		• 보레보레, 상즈망
	8. 26.(월) 16시 ~ 17시		• 발레 동작 이어 완성하기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윤덕원 사회복지사 (구월종합사회복지관)



본인과 기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월종합사회복지관 윤덕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구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유아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자 조모임,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과 가족 봉사 모임을 맡고 있습니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5번째로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구월복지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3대 사업인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 사례관리와 더불어 복지관 관할구역인 구월1동, 2동, 4동, 남촌도림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지역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를 잘 찾아볼 수 없는 어르신도 계시고 바쁜 직장생활로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지역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거동이 불편함에도 교육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적 미술에 관심이 많아 해외도 자주 나가 미술작품을 감상했는데, 몸이 불편해지면서 멀리 나갈 수가 없어 좋아하던 미술작품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좋은 기회에 미술작품도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르신에게 특

별한 추억을 남겨줄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남동문화재단과 함께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서양미술사 수업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너무 좋고 서양미술사 외에도 인문학 강의나 이집트 역사 등 다양한 강의에 대한 욕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서예나 미술 수업 같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말씀해 주셔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희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 남동구민의 편안하고 평범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역량을 맘껏 펼치고 소외되는 지역주민이 없는 활동터전을 제공하는 그러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합니다. ■



○ 전문가 리뷰 : 지역립 프로듀서(세종문화회관)

유아부터 중장년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한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은 대다수의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 중 하나다. 2005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육 과정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고, 창의성과 자기표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이 수립된다면, 기초단위인 지역문화재단은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추진하며, 거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동문화재단이 추진한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 성인 대상 서양미술사(4강), 유아 대상 발레(6강) 두 가지 강좌로 구성했으며, 구민들의 일상 가까이에 자리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을 선택했다.

2024년 7월 5일 오후 7시,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강당은 서양미술사 강의를 찾는 수강생들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빛났다. 총 4회차 강의의 마지막 교육일로 르네상스-인상파-실패한 예술가-현대로 이어지는 강좌의 마지막 날이었다. 교육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했는데, 강의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열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술사 수업이라 하면 의례 연상되는 일방향적인 강의가 아니라 강사와 수강생들의 쌍방향 소통이 돋보였다. 예술가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연결한 스토리텔링이 흥미로웠으며, 지난 강의와 연관해 현대미술 사조를 설명하면, 수강생들이 지난 강의의 기억을 되짚어 질문에 대답하는 등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는데, 강사의 노련함과 열의를 가진 수강생의 시너지였다고 생각한다. 서양미술사 강의는 남동 구민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로 연령을 열어두었으나, 참석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중장년의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3 국민문화예술 교육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문화예술 교육 참여 의향은 전체 평균 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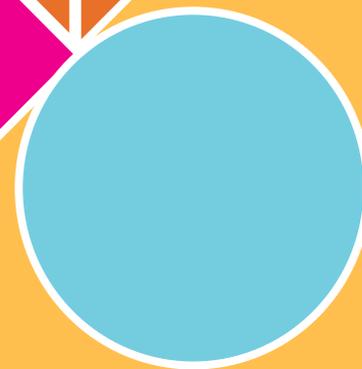
이다. 참여 의향률 순으로 살펴보면, 장년(50~64세) 84.2%, 노년(65~79세) 83.4%, 청년(19~34세) 80.3% 순인데, 이는 장년, 노년층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와 관심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음을 시사한다. 이번 성인 강좌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포착되며, 이러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생애주기별, 타겟별 맞춤 교육 기획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편, 유아 발레 교육은 보다 소규모 밀착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발레 공연 시장의 성장은 물론 성인 취미 발레 유행 등 과거에 비해 발레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아 발레 교육 또한 유치원, 사설 학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 등에서 연령별, 수준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발레 교육은 아동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신체 발달,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음악이나 미술에 비해 대중화되지는 않은 장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동문화재단의 강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으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5~7세 유아들이 발레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예술 복지'를 실현한 셈이다. 정원 6명의 밀도 높은 수업으로, 발레 기본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참여한 유아들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강좌가 진행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개관한 신규 사회복지관이다. 재단 입장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확장하여 구민들의 일상에 보다 가까이 찾아가는 기회를, 복지관 입장에서는 이번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 남동문화재단의 기획력, 운영 노하우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관의 운영 방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반짝이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는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지역의 자원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는 점, 성인/유아 강좌로 생애주기별, 연령별 맞춤 교육을 기획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2024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사각 지대에 놓인 남동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재단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복지 사업이 되길 바란다. ■



우리집 옆 예술家
프로젝트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개요

추진목적

- 문화예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남동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만수동, 남촌동, 간석동) 내 문화거점의 자생적인 생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원도심 주민(문화거점 운영·관리·관계자)이 피동적인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기획참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원도심 주민의 생활 반경 내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

- 사업명 :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 사업내용 : 원도심 문화거점 행사 5회
- 수혜자 : 총 272명(만수동 100명 / 남촌동 42명 / 간석동 130명)
- 만족도 : 4.85점(5점 만점) / 96.94% ※ 조사 참여자 182명
- 사업예산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추진경과

- 간석동 주민 대상 마술 공연 : 8. 9.(금)
- 간석동 주민 대상 마임 공연 : 8. 17.(토)
- 만수동 주민 대상 클래식 교육 : 10. 8.(화) ~ 10. 18.(금)
- 남촌동 주민 대상 문화 커뮤니티 교육 : 10. 16.(수) ~ 11. 6.(수)
- 만수동 주민 대상 마을 답사 및 젤프린팅 교육 : 10. 13.(일)

기대효과

- 문화예술 관련 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내에 자생적인 문화거점 생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주민이 피동적인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기획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남동문화재단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① 간석동 주민 대상 마술 공연

공연개요

- 운영일시 : 8. 9.(금) 16시 ~ 17시
- 운영장소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
- 운영내용 : 간석동 주민 대상 마술 공연
- 출연진 : (사회)정윤호, (마술)원태윤
- 관람객 : 총 83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78점(5점 만점) / 95.56% ※ 조사 참여자 27명
- 협력기관 : 성산도서관





공연세부내용

구분	진행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개막	15:50	16:00	10	• 관객입장
공연소개	16:00	16:05	5	• 정윤희 사회자 공연 소개
공연내용	16:05	16:15	10	• 레이저 공연
	16:15	16:30	15	• 손수건, 지팡이, 훌라후프 공연
	16:30	16:45	15	• 공중부양, 삼색근, 동물인형 공연
	16:45	17:00	15	• LED 저글링, 요요 저글링, 풍선 공연
폐막	17:00	17:10	10	• 관객 퇴장 및 만족도 조사

“ 남동문화재단이 관대 윈도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지 알 수 있었던 공연이다. 전문적인 공연 장치가 들어가기에 장소적 제약이 있었겠지만 윈도샵의 문화거점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운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윈도샵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 ”

강은영 사회복지사(남동구노인복지관)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허인옥 사회복지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허인옥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가족기능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인 성산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고 성산도서관을 담당하며 독서프로그램과 더불어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열며 주민들이 복지관과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성산도서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성산도서관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딱딱하고 정적인 도서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포근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하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 독서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무더운 여름날 쉬어가는 공간으로 찾는 분들도 있어요. 매년 신간도서도 들어오고 있어 유익하고 흥미로운 책들도 많아요.

▲ 성산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성산도서관에서는 월별로 재미 있는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주민들이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끼고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소소한 이벤트를 열고 간식이나 미니 선물들을 준답니다. 그 외 환경오염과 관련된 동화책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이 책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 중에 있어요.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도서관 체험을 통해 규칙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서관 견학도 진행하고 있어 늘 북적거리는 성산도서관입니다.

▲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거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연 및 교육을 제공해 주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장소가 한정적이라 막상 내가 사는 곳 근처에는 그런 곳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복지관과 같은 지역의 거점공간을 활용한다면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죠. 특히 복지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자원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동문화재단과 같이 공연단의 인적 자원이 충분한 곳과 함께 하여 더욱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할 수 있어 좋았고, 오래도록 문화



예술 복지 사업이 유지되어 해마다 더욱 풍성한 공연들이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공연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동문화재단 선생님들의 꼼꼼함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로 사업에 선정되어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함께 기획했는데 저희 복지관의 특성과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귀 기울여주시고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술 공연도 추천해 주시고 퀄리티 높은 공연을 위해 사전 답사는 물론 포스터 제작부터 당일에 음향장비나 공연장 세팅까지,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부터 함께 온 보호자들까지 너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획부터 준비 그리고 마무리까지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관객들로 하여금 높은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간석동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저희 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문화체험이나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여가를 즐기기에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가족이 함께 보러 가기도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OTT 시장이 확산되며 가정에서 미디어 노출도 심해지는 마당이라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공연을 관람할 기회는 더더욱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술 공연이나 다양한 예술 공연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성산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성산도서관이 사랑방과 같이 누구나 방문하여 쉬를 누리고 편하게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도서관은 언제나 숨죽이고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성산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지역의 작은도서관으로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이 친구와 놀기 위해, 간식을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마술 공연과 같이 색다른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성산도서관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우리동네 in 판토마임 프로젝트

우리동네 in 판토마임

2024. 8. 17.(토) 14시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2층 누리마루

입장료 무료
공연문의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032-770-0461)
공연인원

배경기 제공처
 • 국민 상상력도전 대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성 지원인스 후원단체
 • 2019 제주영화수업(교)계역 지원성 지원인스 후원단체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② 간석동 주민 대상 마임 공연

공연개요

- 운영일시 : 8. 17.(토) 14시 ~ 15시
- 운영장소 :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2층 누리마루
- 운영내용 : 간석동 주민 대상 마임 공연
- 출연진 : (사회)정윤호, (마임)배용기
- 관람객 : 총 47명
- 관람료 : 무료
- 만족도 : 4.75점(5점 만점) / 95.00% ※ 조사 참여자 44명
- 협력기관 :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공연세부내용

구분	진행시간		소요(분)	주요내용
개막	13:50	14:00	10	• 관객입장
공연소개	14:00	14:05	5	• 정윤희 사회자 공연 소개
공연내용	14:05	14:15	10	• 막대 이용 마임 배우기
	14:15	14:30	15	• 막대 마임 공연
	14:30	14:45	15	• 모자 마임, 공 마임
	14:45	15:00	15	• 풍선 저글링, 상상력 마임
폐막	15:00	15:10	10	• 관객 퇴장 및 만족도 조사



이번 공연을 통해 원도심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했으며, 지역 내 청소년 특화 공간이 있다는 점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 청소년들은 방향 끝물에 만난 좋은 선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혜영 팀장(남동청소년센터)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이성진 팀장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 이성진 팀장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중앙도서관 소속으로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및 시민에게 환원하여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동아리 활동공간, 북카페,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사람에게 열린 소통공간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의 대표적인 사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휴먼라이브러리 : 책 대신 재능이나 경험을 기부한 휴먼북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으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휴먼북)'을 빌리는 것. 우리가 책을 읽듯이 책으로 등록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도서관 사업

2. 청소년 자치기구 '누리다' : 청소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등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각 팀별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 진로 탐색의 장으로 활용, 청소년 자치기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다누리 이용 활성화 및 홍보 강화

3. (학교연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 등 사회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군 진로 연계 프로그램 인천교육계획에 맞추어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창의적 활동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4.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정서학습 지원과 자기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활동인 '책 읽어주기 봉사단', '보드게임 봉사단'으로 민주시민 자질 함양

5. 청소년 (읽고·건고·쓰고) 독서 동아리 :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별로 다양한 독서 및 독서활동과 글쓰기로 책 출판

6. (학교연계) 다누리 체험 프로그램 : 학교와 연계하여 다누리 공간 및 시설을 체험하고 자료를 활용한 독서 및 건전한 취미 활동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운영

7. (지역연계)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학습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8. (공모사업) 상주작가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공모사업으로 작가가 상주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문학의 접근성을 높여 작가와 직접 책을 통해 소통 공감하는 기회 제공으로 문학 향유 활성화(인천교육청 공공도서관 최초)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주변에서 접할 수 없었던 판토마임이라는 예술공연을 재미있는 마술과 연계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가족 단위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동문화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공연이나 마임이 아닌 관중들과 함께 체험하고 호흡을 맞추는 부분이 좋았고 공연 관련 시설에 대해 미리 체크해 주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간석동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공연이나 콘서트 또는 크리스마스 관련지어 청소년들이 다누리 공간에서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게 클래식과 국악을 접목시킨 공연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청소년문화공간 다누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청소년문화공간이다보니 학교안에서 접하지 못한 다양한 문학예술적 경험을 다누리에서 체험하고 배우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4년 문화예술복지사업

2024 클래식 특독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알아봄직! 들어봄직!

CLASSIC TOCK TOCK

교육기간 | 2024. 10. 8.(화) 부터 2024. 10. 18.(금) 까지 총 4강
 교육대상 | 성인 누구나
 교육장소 | 외곡화글 작은도서관(남동구 청송로17 2층)
 교육신청 | QR코드 신청
 교육비 | 무료

강사명 | 조화원 강사
 주요역력 | ▶ 신보니아타 단장
 인천교사원협중앙회 음악감독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예술감독

구분	운영일시	강의주제
총 4주 (4주)	2024. 10. 08.(화) 10시 ~ 12시	클래식 앙상블기
	2024. 10. 11.(금) 10시 ~ 12시	클래식 세계여행 1편
	2024. 10. 15.(화) 10시 ~ 12시	클래식 세계여행 2편
	2024. 10. 18.(금) 10시 ~ 12시	3악주는 클래식

교육문의 | 외곡화글 작은도서관(032-466-4865)

남동문화재단 **인문학** 작은도서관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③ 만수동 주민 대상 클래식 교육

교육개요

- 운영일시 : 10. 8.(화)~10.18(금) [총 4회]
- 운영장소 :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세미나실
- 운영내용 : 만수동 주민 대상 클래식 교육
- 교육강사 : 조화현 강사
- 교육인원 : 총 86명
- 교육비 : 무료
- 만족도 : 5점(5점 만점) / 100% ※ 조사 참여자 69명
- 협력기관 :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교육세부내용

구분	운영일시	커리큘럼
클래식 (4강)	10. 08.(화) 10시 ~ 12시	• 클래식 맛보기
	10. 11.(금) 10시 ~ 12시	• 클래식 세계여행 1편
	10. 15.(화) 10시 ~ 12시	• 클래식 세계여행 2편
	10. 18.(금) 10시 ~ 12시	• 맛있는 클래식

☞ 축축한 가을비가 내리는 계절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클래식을 접하는 교육이 운영되어 의미가 깊다. 특히 교육에 활용된 클래식 곡 선택과 교육생과의 소통이 매우 훌륭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 행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 고급예술의 깊은 문화예술 향유를 주민들이 갖고 가기를 기대한다. ☞

서정미 외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구순례 관장 (와글와글작은도서관)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구순례 관장입니다.

와글와글작은도서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 도서관은 개관한지 11년 되었습니니다. 도서관 처음은 여성들이 출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임대료가 비교적 싼 장승백(전 창대시장) 상가건물 2층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일을 하는 여성들의 작은 쉼터,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예술공간이 되기를 상상하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013년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을 지나왔네요.

와글와글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사양성과정,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천과 마을의 여러 단체들과 봄에는 어린이날 축제, 가을에는 와글와글골목축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예산이 충분치 못한 작은도서관이 2023년부터 재단과 연결되어 원도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서관을 알리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조화현 선생님 강의 중 같은 단원으로 있는 i-신포니에타 정진성 테너 가수분이 직접 오셔서 이태리 가곡을 들려주었습니다. 도서관이 들썩들썩 신나게 해주신 노래가 끝나고 참여자들이 함께 외친 “브라보”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귀한 클래식 공연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가 없으면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만수동 주민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원도심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토크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기획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작은도서관과 어울리는 클래식과 그림책의 만남을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와글와글작은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만수6동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가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마을, 서로서로 연결되고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의 회복



판에 우리 도서관이 자기역할을 했으면 좋
겠어요. ■





2024년 문화예술복지 사업

우리집 예술가 프로젝트

교육대상 청년 누구나
 교육장소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남촌동 158-100-100-100 20)
 3층 대강당실
 교육시간 편별 신청(02-473-7168)
 교육 비용 없음
 접수처 문화재단 2차
 후원기관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2차
 후원기관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2차
 후원기관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2차
 교육문의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02-473-7168)

02-2024-10-16(수) 13:41 30명 - 1541
 문화 커뮤니티의 현재
 02-2024-10-23(수) 13:41 30명 - 1541
 문화적 소탈은 뭘 좋아할까?
 02-2024-10-30(수) 13:41 30명 - 1541
 젊은이들의 문화의향서?
 02-2024-11-06(수) 13:41 30명 - 1541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문화 커뮤니티
 강의

남촌동 주민센터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④ 남촌동 주민 대상 문화 커뮤니티 교육

교육개요

- 운영일시 : 2024. 10. 16.(수) ~ 11. 6.(수)[총 4회]
- 운영장소 :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
- 운영내용 : 남촌동 주민 대상 문화 커뮤니티 교육
- 교육강사 : 정보선 강사
- 교육인원 : 총 42명
- 교육비 : 무료
- 만족도 : 4.71점(5점 만점) / 94.12% ※ 조사 참여자 34명
- 협력기관 :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 소통은 구성원 간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다. 서로 다른 '나'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하는 문화적 소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문화 커뮤니티 교육은 소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다. 학습 참여자가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그 '다름'에 대해 '상호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감하고 소통하기'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교육에 잘 녹여냈다. ☞

박성열 강사(경희대학교)

교육세부내용

구분	운영일시	커리큘럼
문화 커뮤니티 (4강)	10. 16.(수) 13시 30분 ~ 15시	• 문화 커뮤니티의 현재
	10. 23.(수) 13시 30분 ~ 15시	• 문화적 소통은 왜 중요한가?
	10. 30.(수) 13시 30분 ~ 15시	• 갈등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11. 06.(수) 13시 30분 ~ 15시	• 무엇을 할 것인가?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최영주 코디네이터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



본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지원 코디네이터 최영주입니다.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건물로 2020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연면적 622㎡ 4층 규모로 1층에는 남촌경로당이 2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을밥상이 3층에는 마을주택관리소, 남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강당이 있으며 4층에는 남촌 어울림 작은도서관과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우선 경로당은 남촌동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게임도 하며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남동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운영 지원기관으로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모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가 있어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공구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꽃피는 남촌두레는 2019년부터 활동한 주민협의체로 마을신문 발간, 마을 축제 개최, 마을쉼터 꽃밭조성, 각종 나눔 행사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꽃피는 남촌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 내 공유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전통주, 두부 제조·판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촌어울림 작은도서관은 남동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은 문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주민들이 낯설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의에 참여한 주민들은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



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강의내용이 주민들과 밀접한 내용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사와 주민이 서로 대화하며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촌동 주민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우선 문화예술행사가 운영되려면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야 하는데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구가 많은 점과 기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많은 강의식 교육을 받고 있어 강의 형태의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홍보 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남촌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지역주민 간 소통증진, 정보 교류의 장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로 이루어진 주민 플랫폼 공간입니다. 앞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 참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센터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문화예술사업 118호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만부마을의 가을 수집가

2024.10.13.(일) 10시 ~ 12시 만부마을 주민 및 가족 대상	2024.10.13.(일) ~ 2024.10.27.(일) 작품 전시	2024.10.27.(일) 작품 및 제작 수품
---	---	------------------------------

교육장소
만부마을 일월 및 행안이네
(남부구 만부마을7단지 1층)

교육대상
남부구 주민 및
만부마을의 주민과 방문객

교육비
무료

교육신청
QR코드 신청

강사명
박혜원 강사(주아)

활동시간
* 화요일 19시
* 화요일 19시 ~ 20시 30분
* 휴무일: 월요일, 10월 14일, 10월 21일, 10월 28일

문의 | 010-7716-5408 · 010-2739-5449

행안이네



우리집 옆 예술가 프로젝트 ⑤

만수동 주민 대상 마을 답사·젤프린팅 교육

교육개요

- 운영일시 : 2024. 10. 13.(일) 10시 ~ 12시
- 운영장소 : 만부마을 일원 및 마을카페 행만이네
- 운영내용 : 만수동 주민 대상 마을 답사·젤프린팅 교육
- 교육강사 : 박해현 강사, 황혜미 강사, 이청수 강사, 임혜련 강사
- 교육인원 : 총 14명
- 교육비 : 무료
- 만족도 : 5점(5점 만점) / 100% ※ 조사 참여자 8명
- 협력기관 : 마을카페 행만이네



본 행사를 통해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 지역민의 상생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동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복지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는 원도심의 문화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부마을 곳곳에서 남동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왕용운 대리(인천중구문화재단)

교육세부내용

구분	진행일시		소요(분)	커리큘럼
마을답사	10:00	11:00	60	• 만부마을 답사
문화예술 교육	11:00	12:00	60	• 젤프린팅 교육



○ 협업기관 담당자 인터뷰 황혜미 활동가 등 (마을카페 행만이네)



마을카페 행만이네의 구성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황혜미 활동가 : 마을카페 행만이네는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모인 곳으로, 청년문화기획자, 바리스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박해현 활동가, 임혜련 활동가, 황혜미 활동가, 이청수 활동가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을카페 행만이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황혜미 활동가 : '행복한 만부가 살고 있는 행만이네'는 만부마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소모임을 운영하며, 카페 수익은 공간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지역 청년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기획자, 예술가, 바리스타 등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을카페 행만이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황혜미 활동가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 경험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공연,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행사를 위한 공간대관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운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이청수 활동가 : 전체적으로 믿고 맡겨주는 느낌이라서 참여자들과 자유롭게 가을을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임박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혜미 활동가 :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이 긍정적인 결과가

되어 내년에도 더 많은 문화기획사업의 기회가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박해현 활동가 : 상상만 하던 일들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더욱 창의적이고 남동구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혜련 활동가 :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걸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실현되어 사업 운영 내내 즐거웠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흔쾌히 저희 기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문화 기획 부분으로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만부마을 답사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박해현 활동가 : 만부마을의 존재와 현재의 모습은 인천에서 이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형태의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기획자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직접 답사를 통해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지금의 형태를 눈으로 보고, 숨은 마을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며 마을이 주는 바이브를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제에 맞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 위주로 코스를 구성했습니다.

임혜련 활동가 : 만부마을은 깊은 역사와 조금은 아픔이 있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냥 '동네'만을 놓고 들여다본다면 참 매력이 가득한 곳인데요. '자신만의 취향으로 가득 꾸며놓은 만부마을의 집들', '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함께 쉬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부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수산 밑의 작은 마을이 '아픔'으로 기억되는 동네가 아닌, 가을의 정취를 제일 잘 담아내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동네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습니다.

젤프린팅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황혜미 활동가 : 가을 속 만부마을을 걸으며 보고 느낀 것들을 젤프린팅으로 표현하고 기록함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이길 바랐습니다. 가을 하늘색은 어떠했는지, 지붕의 색, 집 앞에 누군가 잘 키워놓은 식물들, 만수산의 가을 색과 냄새, 바람을 작품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모두가 만든 젤프린팅을 모아 작품집으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느낀 만부마을과 타인이 느낀 만부마을에 대한 시각을 작품집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 하길 바랍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한 음악을 작곡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음악을 통해 다루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청수 활동가 : 마을카페 행만이네의 음악을 통해 다루고 싶었던 주제는 '음악을 통한 계절감의 공유와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기획 의도가 있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계절마다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2024년의 푸르고 더웠던 가을을 함께 기억하고 감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만이네 방문 시작부터 끝까지 '만부산책'이라는 노래를 들려주었고, 책자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매년 가을이 돌아올 때

의 기억을 음악과 함께 회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언제나 그해 가을의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남동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청수 활동가 : 만수산과 무장애 길은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정작 '무장애 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준비하며 무장애 길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취지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공간들이 각자의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간의 이름 하나에도 깊은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이는 제 주변의 공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천천히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황혜미 활동가 : <만부마을의 가을 수집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10월 중순에 느끼기 힘든 더위에 젤프린팅 재료로 사용해야 할 낙엽 대신 새싹과 나비가 반기는 만수산의 보니, 내가 알던 가을은 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중 "낙엽이 없으니, 낙엽의 색을 상상하며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던 말이 유독 떠오릅니다.

박해현 활동가 : 미술, 음악, 로컬, 관광의 전문가가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을과 만부마을을 주제로 4가지의 분야가 하나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가히 아



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임혜련 활동가 : 처음엔 '만부마을'의 접근성이 떨어져 주로 '남동구' 주민들의 참여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멀리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져 아침 일찍부터 참여해 주신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동네가 있는지 몰랐어요', '20년 전에 만수동 살았는데 이번 기회로 오랜만에 와서 기뻐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활동이 너무 좋았어요' 등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동네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참여자들의 후기 하나하나가 아직까지 깊은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만수동 주민에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되면 좋을까요?

박해현 활동가 :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것보다는 이번 사업처럼 몸으로 부대끼고,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형의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혜련 활동가 : 수동적인 예술 활동보다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활동하는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 많아졌

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만수동 속 동네, 상점 등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큐레이션하고 디깅하는 활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동'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예술 활동도 함께 넓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을카페 행만이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해미 활동가 : 앞으로도 행만이네는 행복한 만부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만부마을 주민들의 문화예술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청년들의 도전과 시작을 지원하는 다양한 실천 플랫폼 역할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아가 만부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넘겨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남동문화재단 문화예술복지 사업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4. 12. 31.

발행인 남동문화재단 김재열 대표이사

편집인 남동문화재단 임원재 사무국장

기획인 남동문화재단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

제작인 남동문화재단 신창희 차장, 이준협 사원

발행처 남동문화재단

디자인 노아 북앤컬처

문 의 070 · 8820 · 4037